

# 2018 다애 교회 교회사 특강

특강#1 초대교회에서 중세교회까지

##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

안상혁 목사

(합동신학대학원 역사신학)

다애 교회

July. 8, 2018

# THE SPREAD OF THE GOSPEL

"And Jesus came and spoke unto them, saying, All power is given unto me in heaven and in earth. Go ye therefore, and teach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Ghos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ings whatsoever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unto the end of the world. Amen."

Matthew 28:18-20

## How to Use This Map

Over 2000 years,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has moved progressively outward from Jerusalem to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During that time there has been much progress, and also many setbacks. The purpose of this map is to show geographic progress, the forward movement of the gospel over time. Each year line represents how far the gospel

has reached in a single century, not necessarily Christianization of the entire population of an area or purity of doctrine. And while this map reveals some areas of penetration, it does not show church apostasy or retreat. Use this map as a teaching tool for further study into the spread of the Gospel, and the ongoing story of the Great Commission.

## Asia

Chinese history is marked by six or seven centuries of wars, revolts, persecutions and breaks of faith. Missionaries like the Jesuit Matteo Ricci and more widely than in Asia. The Church was established in China and was both well and almost immediately persecuted by the Imperial state. Each revival was met by further persecution. Many Confucians, Buddhists, foreign traders, and today, totalitarian Communism. Much of India populated Roman Catholics in the 16th century but reverted back to Hinduism even more rapidly in the 17th. India and Southeast Asia are under Islamic attack, and North Korea and Chinese leaders are trying to suppress Christianity. Nevertheless, the 21st century is witnessing explosive growth of the Asian church, and South Korea is a top missionary-sending nation.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William Carey, 1793

0 1000 2000  
miles

## North America

While there is some evidence that Celtic Missionaries visited around the 5th century, the Gospel did not begin to take lasting effect until European settlers arrived in the 1500s. Spain sent Jesuit priests and Compadrothers to Mexico and Central America. France sent traders and soldiers to Canada and the Caribbean, and from England came families to Virginia and Massachusetts. "For the Advancement of the Christian Faith" The Puritans who came to New England made deliberate efforts to build a nation on Biblical laws and principles to be "a city on a hill" to the watching nations, while continued exploration of the vast North American wilderness provided many opportunities for missionaries to reach the scattered native American Indian tribes. Scriptural foundations created a growing nation of emigrants for 150 years, giving birth to an independent Christian republic, which continued to prosper and send missionaries around the world. In the 17th century, people in its expanding and competing religious ideas compromised and then avoided its deeply held foundations. Now, many American Christians continue to advance the Gospel of Jesus and His Holy Spirit worldwide.

## South America

The brutal Inca Empire was built on the ruins of their conquests from, but was already declining by the time the Conquistadors arrived. Spanish priests brought some basic Christian truths and ended human sacrifice and demon worship, but they blended Roman Catholicism with local paganism. The Spanish and Portuguese constructed colonies to support their own overbearing empires rather than building self-sufficient nations. As a result, the last two centuries have seen most South American countries wracked by revolutions, coups, and political meddling from Roman Catholic and communist powers. Amongst the Amazon's vast jungles, the Evangelical church is growing rapidly.

## Heresies and Schisms

In 315, Emperor Constantine embraced Christianity and established the Roman Empire.

## The Middle Ages

As the Roman Empire collapsed around her, the Western Church took up the difficult work of reconstruction.

## The Reformation

In the 16th century, reformers began to challenge the authority of the Pope and the Roman Catholic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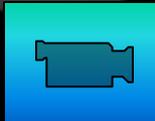
## Global Missions

With the

## The Early Church

The first Christian missionaries spread from the Jews.

- 2000 World Missionary Conference in Lausanne
- 1900 Great Union collapse
- 1800 Richard W. Lamm publishes "The Gospel of Christ"
- 1700 1800 1810 1820 1830 1840 1850 1860 1870 1880 1890 1900
- 1600 Ottoman Empire collapse
- 1500 1510 1520 1530 1540 1550 1560 1570 1580 1590 1600
- 1400 1410 1420 1430 1440 1450 1460 1470 1480 1490 1500
- 1300 1310 1320 1330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400
- 1200 1210 1220 1230 1240 1250 1260 1270 1280 1290 1300
- 1100 1110 1120 1130 1140 1150 1160 1170 1180 1190 1200
- 1000 1010 1020 1030 1040 1050 1060 1070 1080 1090 1100
- 900 910 920 930 940 950 960 970 980 990 1000
- 800 810 820 830 840 850 860 870 880 890 900
- 700 710 720 730 740 750 760 770 780 790 800
- 600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90 700
- 500 510 520 530 540 550 560 570 580 590 600
-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00
-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290 300
-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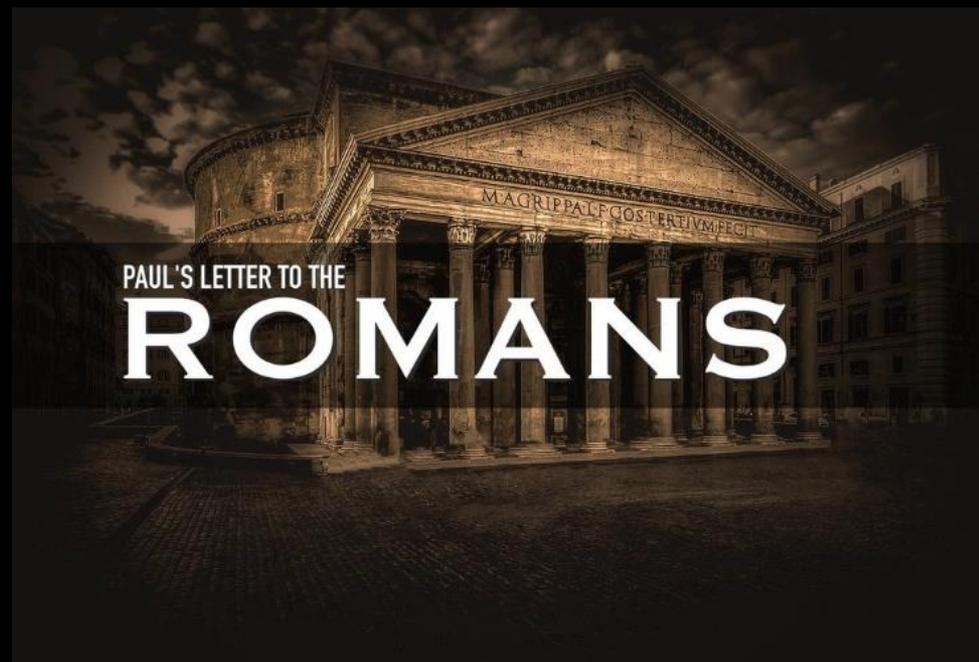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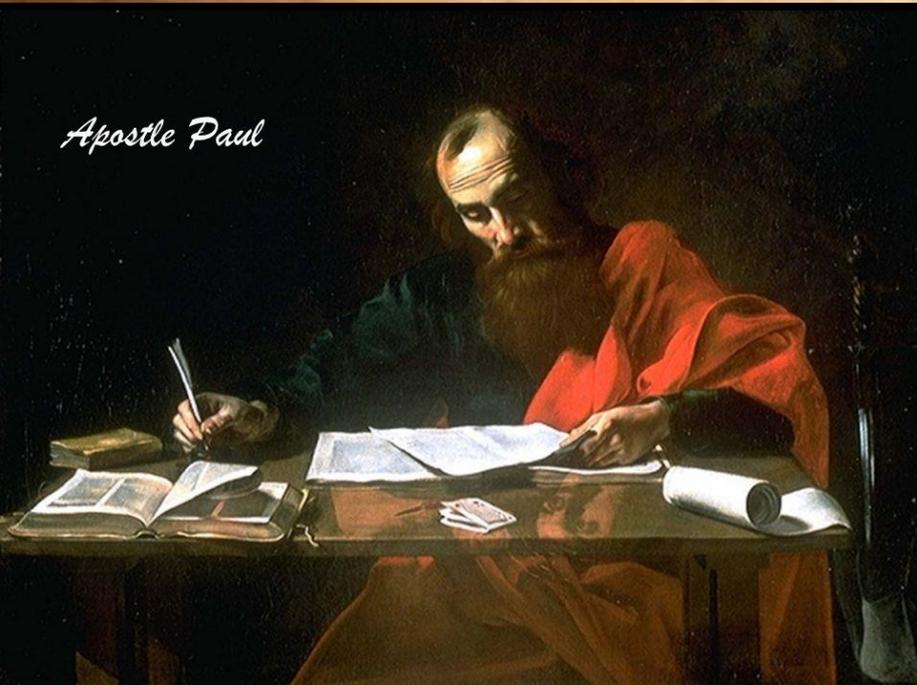


T.P.(전환점) #0

**B.C. & A.D.**  
**예수 그리스도**



*Apostle Paul*



PAUL'S LETTER TO THE  
**ROMANS**

##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바울의 찬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성령 (영)	○	○			●		○	●●●●●●●● ○○○○○○○○○○○○○○	●					●	●●●●	
다른 명칭	성령의 영	신령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JX의 영; 부활의 영; 양자의 영								
문맥	메시아 (성육신)	유대인의 정제성 (말례)			하나님의 사랑		율법	1.  2. 3. 4. 부활, 부활의 약속 (11)	양심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랑)		(2-4) 양상 19:1 이 4, 18 (8) 신 19:4 사 29:10 (10) 사 69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능력 #1, 소망 #2, 이방 구원 #3, 이방 선교 #4, 사역	
구약 인용	(17) 말 2:4  (23) 시 106:20	(b) 시 62:12 잠 24:12  (24) 사 52:5 렘 36:22	(4) 시 51:4  (b) 창 18:25 (12-18) 시 14:1-3 시 53:1-3 잠 7:20 시 5:9 시 140:3 시 10:7 사 59:7-8 시 36:1	(3) 창 15:6, 22  (8) 시 32:1, 2  (11) 창 17:10  (18) 창 15:5  (21) 창 18:14	(12) 창 2:17  (15) 사 53:11	(7) 출 20:17 신 6:21	(31) 시 118:6-8 "여호와 나의 내일이시라 내게 다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떤 악을"  (3b) 시 14:22 "우리가 종일 종을 위하여 종일 당개 심어 도살할 양같이 여기길 바라나이다"  (25-26) - 이방의 구원 렘 2:23; 1:10 - "내 백성이 아니라"  (27-29) - 이스라엘: "남은 자 신약" 사 10:20-23; 1:9; 렘 50:40  (33) 사 8:14; 28:16	(3) 출 32:32 (4) 시 147:19 (7) 창 21:12 (9) 창 18:10, 14 (10) 창 25:21 (12) 창 25:23 (13) 말 1:2 (14) 대하 19:7 (15) 출 33:19 (17) 출 9:16 (20) 사 29:16; 45:9	(5) 레 18:5-22-23 (6-8) 13:0:12-14 (11) 사 28:16 <b>(13) 렘 2:32</b> (15) 사 52:7 (16) 사 53:1 (18) 시 9:4 (19) 130:21 사 5:1-2	(9) 암 5:15  (19) 신 32:35  (20) 창 25:21  22	(8-9) 출 20:13-15, 17; 신 5:17-19, 21 레 19:18	(11) 사 45:2	(3) 사 69:9  (9-12) 삼아 22:50 시 18:49 신 32:43 시 117:1 사 11:10  (21) 사 52:15	(16) 창 3:15		
JX	복음	JX & 율법 (모세)	JX & 아브라함	JX & 아담	JX & 나				JX & 이방인 JX & 만민 (11:36)			JX & 성도의 삶 (교회, 이웃, 연수, 정부, 선교)				

(사도바울의 로마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JX																
성령	○	○			●		○		●					●	●●●●	
영	신앙의 영	신령					영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JX의 영; 부활의 영; 양자의 영								
내용	복음	하나님의 무차별적 사랑	죄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사랑	아브라함의 믿음	아담 & JX	그리스도인들 (해방 & 의의증)	율법	1. 칭의: 죄악으로부터의 해방(2) 2. 성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4) 3. 포제: 성령의 내주(9-11) 4. 부활: 부활의 약속(11)	복음과 유대인 하나님의 주권	복음 전도	남은자 (2-4) 왕상19:10 14,18 (8)신19:4 사29:10	성도의 삶	성도와 세상 권세	성도의 교회생활(약자)	성령의 능력 #1. 소망 #2. 이방인 구원 #3. 이방 선교 #4. 사역	인사
구약 인용	(17) 할 2:4 (23) 사106:20	(6) 사62:12 잠24:12 (24) 사52:5 겠36:22	(4) 사51:4 (6) 창18:25 (12-18) 사14:1-3 사53:1-3 절7:20 사5:9 사140:3 사10:7 사59:7-8 사36:1	(3) 창15:6,22 (8) 사32:1,2 (11) 창17:10 (18) 창15:5 (21) 창18:14	(12) 창2:17 (15) 사53:11		(7) 출20:17 갈6:21	(31) 사118:6 "여호와 내 기업이 너기 데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기 기업이 없다" (36) 사44:22 "우리가 종이 될 위하여 족임을 당계 마땅치 않을 양같이 여겼을 뿐이거니와" (25-26) - 여방의 구원 렵2:23; 1:10 - "내 백성이 아니라.." (27-29) - 여방의 열매: "남은 자 싹" 렵10:20-23; 1:9; 렵50:40 (33) 사8:14; 28:16	(3) 출32:32 (4) 사147:19 (7) 창21:12 (9) 창18:10,14 (10) 창25:21 (12) 창25:23 (13) 말1:2 (14) 대하19:7 (15) 출33:19 (17) 출9:16 (20) 사29:16;45:9	(5) 렵18:5 (6-8) 렵30:12-14 (11) 사28:16 (13) 렵2:32 (15) 사52:7-34 (16) 사53:1 (18) 사19:4 (19) 렵32:21 (20-21) 사40:13 (36) 렵41:11	(9) 렵5:15 (19) 신32:35 (20) 렵25:21-22	(8-9) 출20:13-15,17; 렵5:17-19, 21 렵19:18	(11) 사45:2	(3) 사69:9 (9-12) 렵22:50 사18:49 사32:43 사117:1 사11:10 (21) 사52:15	(16) 렵3:15	
JX	복음	JX & 율법 (모세)	JX & 아브라함	JX & 아담		JX & 교회 (나)		JX & 이방인 JX & 마귀 (11:36)		JX & 성도의 삶 (교회, 이웃, 원수, 정부,						

구약인용: 106절 이상

“JX로 구약 다시 읽기”

# 바울의 구약 다시 읽기

## A.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오경

### 1) 모세(율법) 다시 읽기 (2-3장)

#1. 1-2장에서 바울이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상"을 집요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2. 율법의 기능? (3:20)

#3. 결론? -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 )의 행위에 있지

2) 아브라함 다시 읽기 (4장) -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창15:6)을 얻은 것이 주

3) 아담 다시 읽기 (5장) - 롬5:12-19장을 읽어보자. 아담 ("한 사람")에 대한 바울의 평

#1. 부정적 (12절)?

#2. 긍정적? [참고: 14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 B.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서

1) 하박국서 다시 읽기 (롬1:17)

2) 다윗 다시 읽기 (4:6-8) - 다윗의 행복?

3) 호세아 다시 읽기 (9:25-26)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호세아의 메시지? 이스라엘

4) 엘리야/이사야 다시 읽기 (9:27-29; 11:1-12; 15:21) -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학

**(적용)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 #1. 바울의 인간관/세계관의 변화 -11:32 “
- #2. 바울의 자연관/우주관의 확장 -8:19-23

### 롬 11:32-36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기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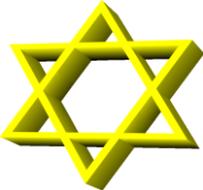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갚으심을 받게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

4 사건들				4 족장들			
Creation	Fall	Flood	Nations	 Abraham	Isaac	Jacob	Joseph

**아브라함 언약 = 이방인을 위한 복임!**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만민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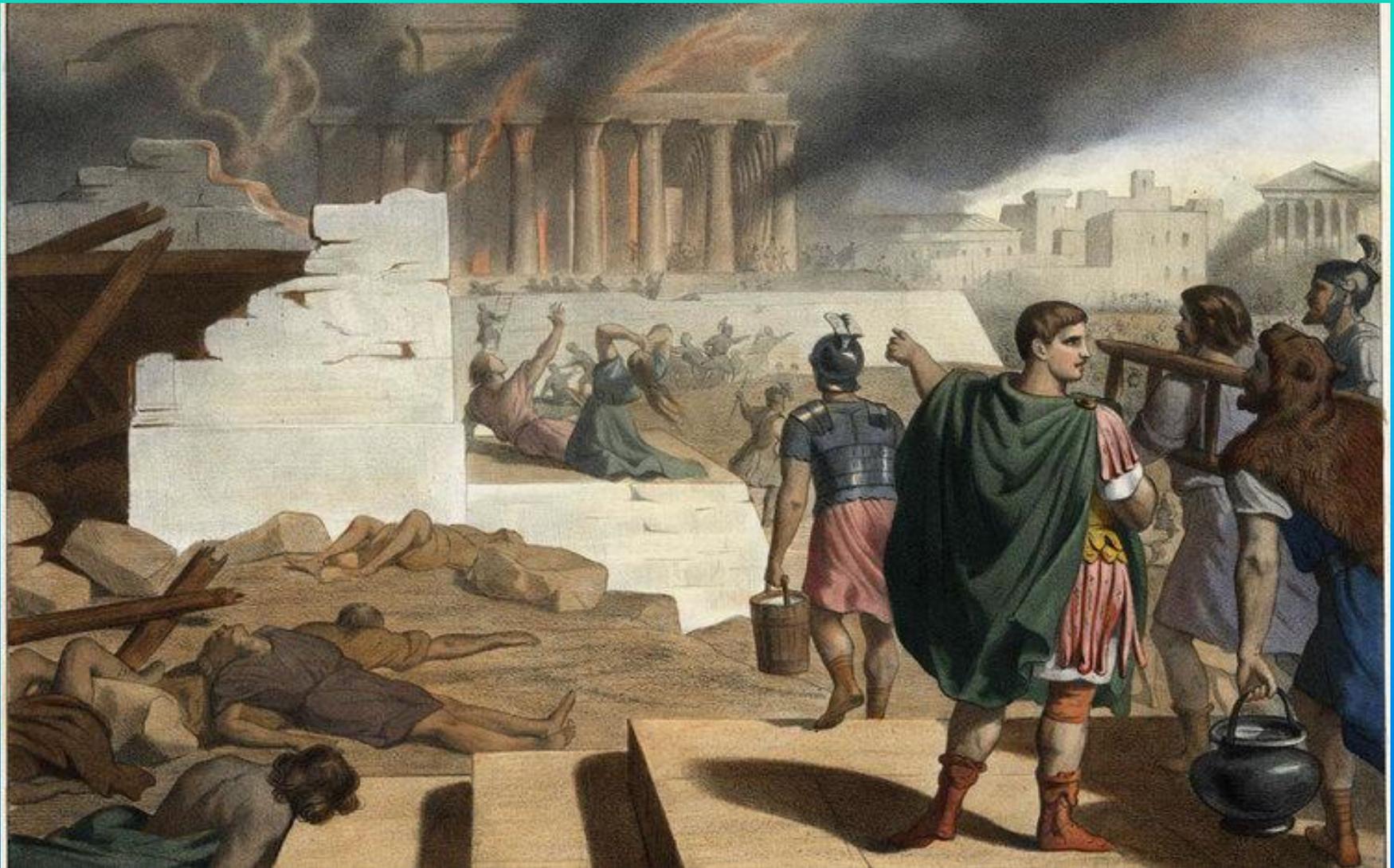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8)

T.P.(전환점) #1

A.D. 70

예루살렘의 멸망

# 예루살렘의 멸망 (A.D. 70)



# 초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

THE SPREAD OF CHRISTIANITY

##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성>

### #1. (사역자) 열 두 사도의 독특성!

- cf. 성경: 사도직의 계승 언급 없음

### #2. (유일성)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이며 전체 교회의 모(母)교회였다.

- 이후 스테반의 순교로 교인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 자(子)교회들이 세워짐

### #3. (기능) 예루살렘 교회는 다른 모든 지역교회의 모(母)교회였다.

-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 기능의 성취/완수

독특성의 계승?

불필요!

정훈택 “예루살렘 교회는 이상적이며 모범적인 교회인가?” (2008), 169-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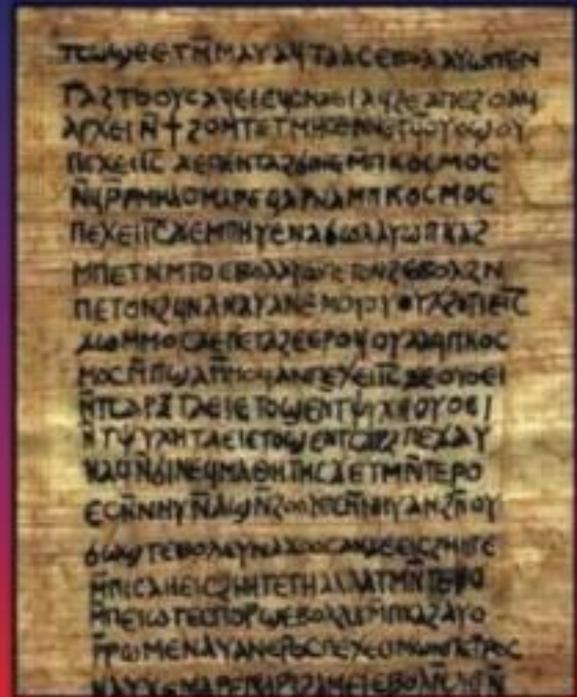
디다케  
*Didache*  
A.D. 100년경?



# The Didache

The Teaching of the 12 Apostles  
Text, Historical Manuscripts

Primary  
docum



## 일반적으로 디다케라 불리는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 본문

열두 명의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

**1** 1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리고 이 두 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2** 우선,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첫째, 너희는 너희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 너희는 너희의 이웃을 너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sup>17</sup>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삼갈 것을 원하는 것은, 너희도 그들에게 행해서는 안 된다.<sup>18</sup>

**3** 이 금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희의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17. 마태복음 22:37-39; 레위기 19:18.

18. 참고 마태복음 7:12.

렇지만 만약 네가 할 수 없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3** 자, 이제는 음식에 관한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의 책임을 져라. 그러나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은 엄격하게 가까이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신들에 참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 1 이제는 세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세례를 주는 방법이다. 이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공적으로 가르쳐라. 그리고 나서 흐르는 물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sup>42</sup> **2** 만약 흐르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들로 세례를 주라. **3** 만약 찬물로 할 수 없다면, 따뜻한 물로 하라. 만약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머리 위에 물을 부으라.<sup>43</sup> **4** 더 나아가 세례 전에 세례를 주는 자와 세례를 받는 자, 그리고 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나 금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세례를 받는 자에게 사전에 하루 혹은 이를 동안 금식하라고 말해야만 한다.

**8** 1 너희들의 금식은 위선자들의 금식과 같아서는 안 된다.<sup>44</sup> 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해야 한다.

**2** 너희들은 위선자들과 같이 기도해서는 안 된다.<sup>45</sup> 대신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명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sup>46</sup>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3**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해야 한다.

42. 마태복음 28:19.

43. 앞의 책.

44. 즉, 유대 인물. 참고 마태복음 6:16.

45. 마태복음 6:5.

46. 참고 마태복음 6:9-13.

**9** 1 이제 성만찬에 관한 것이다.<sup>47</sup> 이것이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2 첫째, 컵과 관련하여,<sup>48</sup>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당신의 자녀 다윗의 성스러운 포도주<sup>49</sup>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 어다.”

**3** 그리고 나서 [빵 덩어리로부터 떼어 낸] 조각<sup>50</sup>과 관련하여.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생명과 지식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 어다.”

4 “이 [빵] 조각이 언덕 위<sup>51</sup> 흠뻑 젖었다가 다시 끊어모아져 하나로 만들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당신의 교회가 당신의 나라로 이 땅의 끝에서 불러 모아지게 하소서. 그것은 영광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5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너희는 어느 누구도 성만찬에 먹고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하여 주님께서 “신성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지어다.”<sup>52</sup>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0** 1 너희는 식사를 끝마친 후, 다음과 같이 감사 기도<sup>53</sup>를 해라.

2 “거룩하신 아버지, 당신께서 우리 가슴에 박아 놓으신<sup>54</sup> 당신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신 지식과 신앙과 불멸

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 어다.”

3 “전능하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sup>55</sup> “인간들에게 당신께 감사를 드리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즐기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당신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4 “무엇보다도 당신이 위대하시다는 것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 어다.”

5 “주님, 당신의 교회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하고, 당신의 사랑에 의하여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시켜 놓으신 당신의 나라로 당신의 교회를 ‘사방으로부터 모으소서.’<sup>56</sup> 그것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6 “은혜[예수 그리스도]<sup>57</sup>가 오게 하시고 이 세상이 지나가게 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께!”<sup>58</sup>

“만약 누구든지 거룩하거나, 그로 하여금 오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라.”<sup>59</sup>

“우리의 주님이시여, 오소서!”<sup>60</sup>

“아멘.”<sup>61</sup>

7 그렇지만 예언자들의 경우,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를 드리게 해야 한다.<sup>62</sup>

47. 즉, '감사식'. 하지만 이 용어는 기독교에서 주의 만찬 시 드리는 특별한 감사를 위한 전문 용어가 되었다. 이것은 '감사드림'(say grace)에서처럼 인접하여 있따라 일어나는 동사 형태인 'give thanks'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이라는 기독교 감사식이 발전했던 것은 식사 전과 후(어떤 경우에는 빵을 떼는 것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포도주를 담은 공동의 잔을 나눔에 의해 수반되는)의 감사 기도를 위한 유대교 형식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48. 컵이 식사의 마지막에서 맨 처음으로 옮겨진 것은 「디다케」의 진기한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진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49. 이것은 예수를 통해 계시된 신적 삶과 지식에 대한 은유적 언급일 것이다(참고 9:3). 이것은 또한 메시아적 약속(참고 사 11:1), 혹은 메시아적 공동체(참고 시 80:8), 즉 교회를 언급하는 것일 것이다.

50. 이상한 표현. 하지만 이것은 식사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유대교 관습(기독교의 주의 만찬에 인계 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집안의 가정은 하나님께 적절한 감사 기도를 말하고 나서 손님들 각자에게 빵 덩어리로부터 떼어진 조각들을 분배했다.

51. 이것은 유대의 언덕 종턱에서 소맥의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52. 마태복음 7:6.

53. 혹은 '감사해라.' 47번 각주를 보라.

54. 이 표현을 위해서 느헤미야 1:9를 참고하라.

**11** 1 너희는 너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말해 왔던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자는

55. 지혜서 1:14; 시라 18:1; 요한계시록 4:11.

56. 마태복음 24:31.

57. 그리스도를 위한 직함.

58. 참고 마태복음 21:9, 15.

59. 혹은 아마도 '개종되다.'

60. 참고 고린도전서 16:22.

61. 이 간결한 외침들은 찬양의 단구들과 화창을 하는 구절들이었을 것이다. 아마 이것들은 마지막 축복 다음에 이스라엘의 미래 구원과 영광에 관한 구절들을 읽는 유대교의 관습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62. 즉, 이들은 주어진 본문들에 의해 속박되지 않는다.

**14** 1 매 주님의 날, 즉 그분의 특별한 날<sup>71</sup>에 너희의 산 제물이 순결하도록 먼저 너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모여 빵을 떼고 감사를 드려라. 2 이웃과 불화 가운데 있는 자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 너희의 산 제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누구든지 너희와 동참해서는 안 된다. 3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이 제물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항상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에게 순결한 제물을 드려라. 나는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은 열방에 의해 감탄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sup>72</sup>

**15** 1 그다음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하여 주님께 자랑거리이며, 온화하고, 관대하며, 충실하고, 많은 시련을 이겨 낸 **감독들과 집사들**을 선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에 대한 그들의 사역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사역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너희는 멸시해서는 안 된다.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더불어 그들은 너희 가운데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더 나아가 화나서 서로를 꾸짖지 말라. 대신 너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듯이 조용하게 꾸짖어라. 또한 만약 누군가 그의 이웃에게 부당한 취급을 했으면, 그가 회개할 때까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되며, 그도 너희로부터 아무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4 기도하고, 연보하며, 우리 주님의 복음서에서 너희가 발견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라.

**16** 1 너희 삶을 ‘감시하라.’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너희의 허리띠가 풀어진 채” 있지 않게 하라. 대신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각을 너희가 알지 못하므로” “준비하고 있으라.”<sup>73</sup> 2 너희 영혼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자주 함께 모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최후의 순간에 온전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너희에게 “평생에 걸친 믿음이 유익이 되지 못할 것”<sup>74</sup>이기 때문이다. 3 마지막 때에

71. 글자 뜻 그대로 '매 주님의 주님의 날'(On every Lord's Day of the Lord).

72. 말라기 1:11, 14.

73. 마태복음 24:42, 44; 누가복음 12:35.

74. 바나바의 편지 4:9.

T.P.(전환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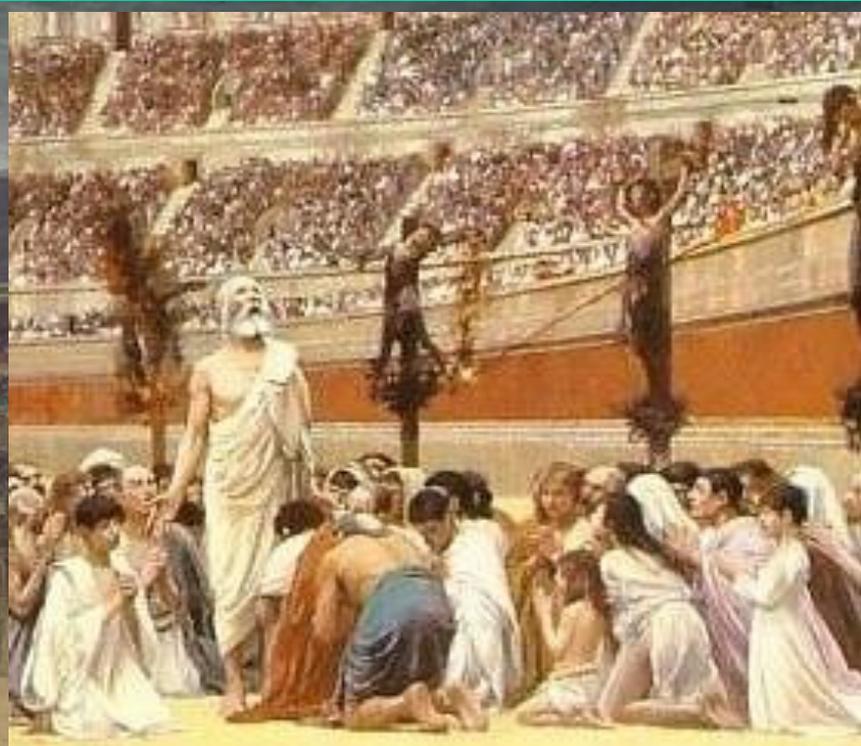
A.D. 313

로마인의 기독교 공인

“ 손 교자의 피는

교회에 싸여 있다! ”

— 터툴리안 *Apologeticus*, Chap. 50 (c.197)



네로  
포박  
(64)

데키우스  
구우세리  
(250)

디오클레  
티안  
(303)



# 초대 교회: 박해 받은 이유?



황제 숭배  
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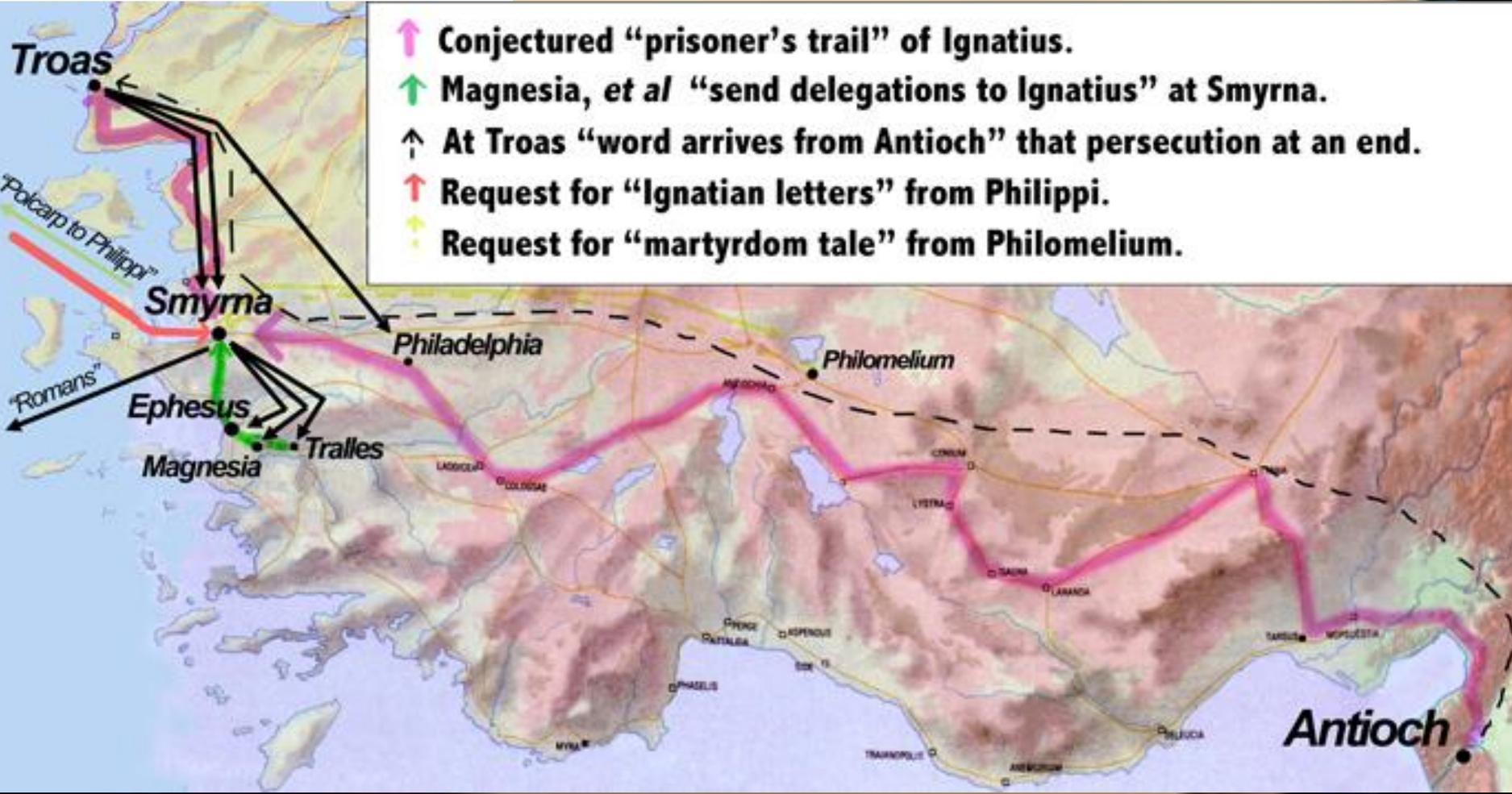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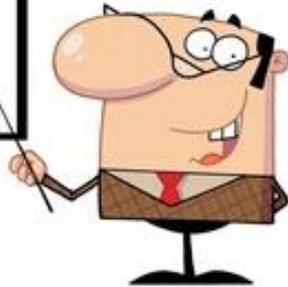
오해!

# 이그나티우스

(d. c.98-117)

& 플리깁

(d.155 or 1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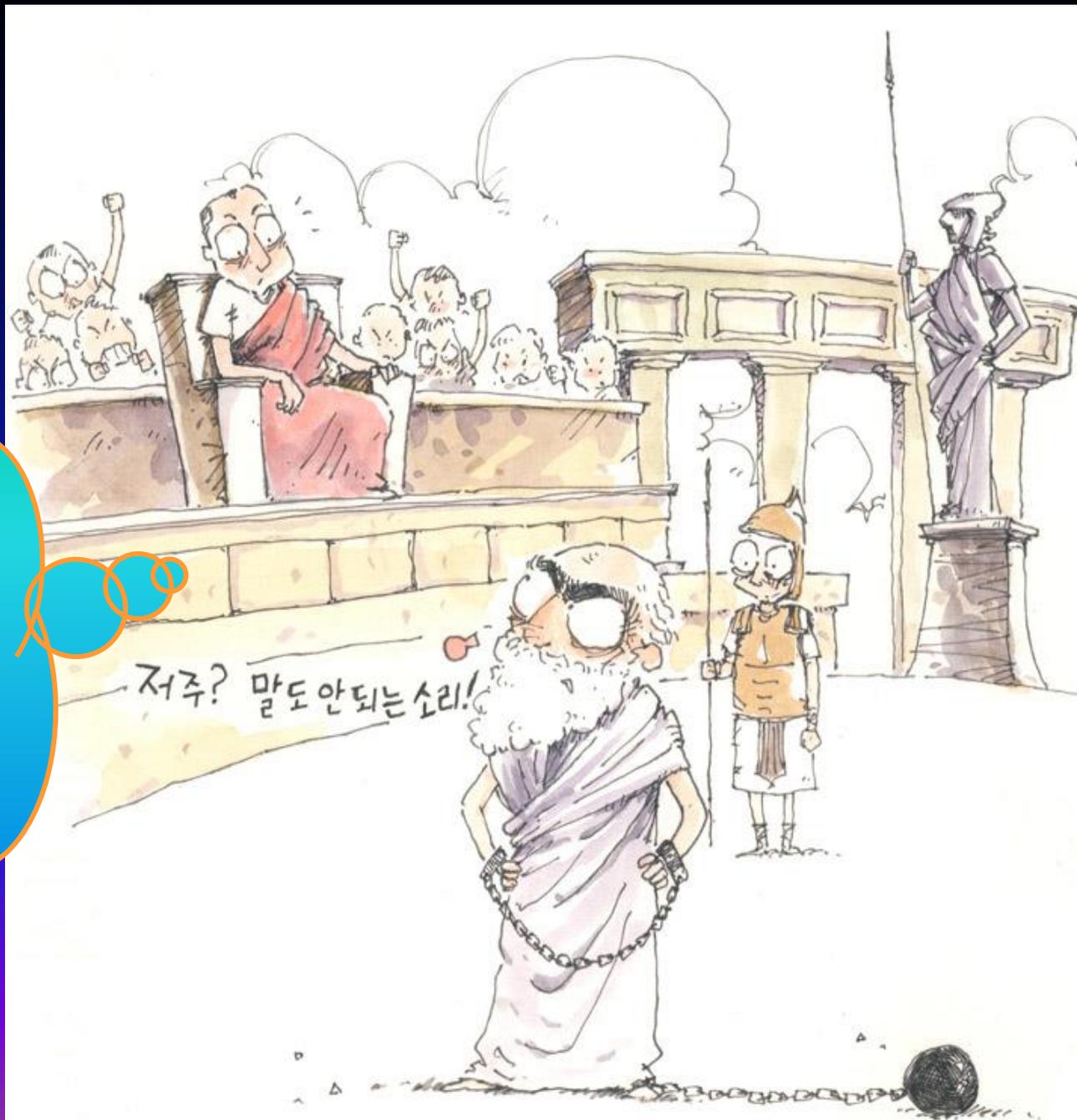
- ↑ Conjectured "prisoner's trail" of Ignatius.
- ↑ Magnesia, et al "send delegations to Ignatius" at Smyrna.
- ↑ At Troas "word arrives from Antioch" that persecution at an end.
- ↑ Request for "Ignatian letters" from Philippi.
- ↑ Request for "martyrdom tale" from Philomelium.



# 폴리감 순교사와

순교일: AD. 155년경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겨온 나쁜 한 번도  
 저주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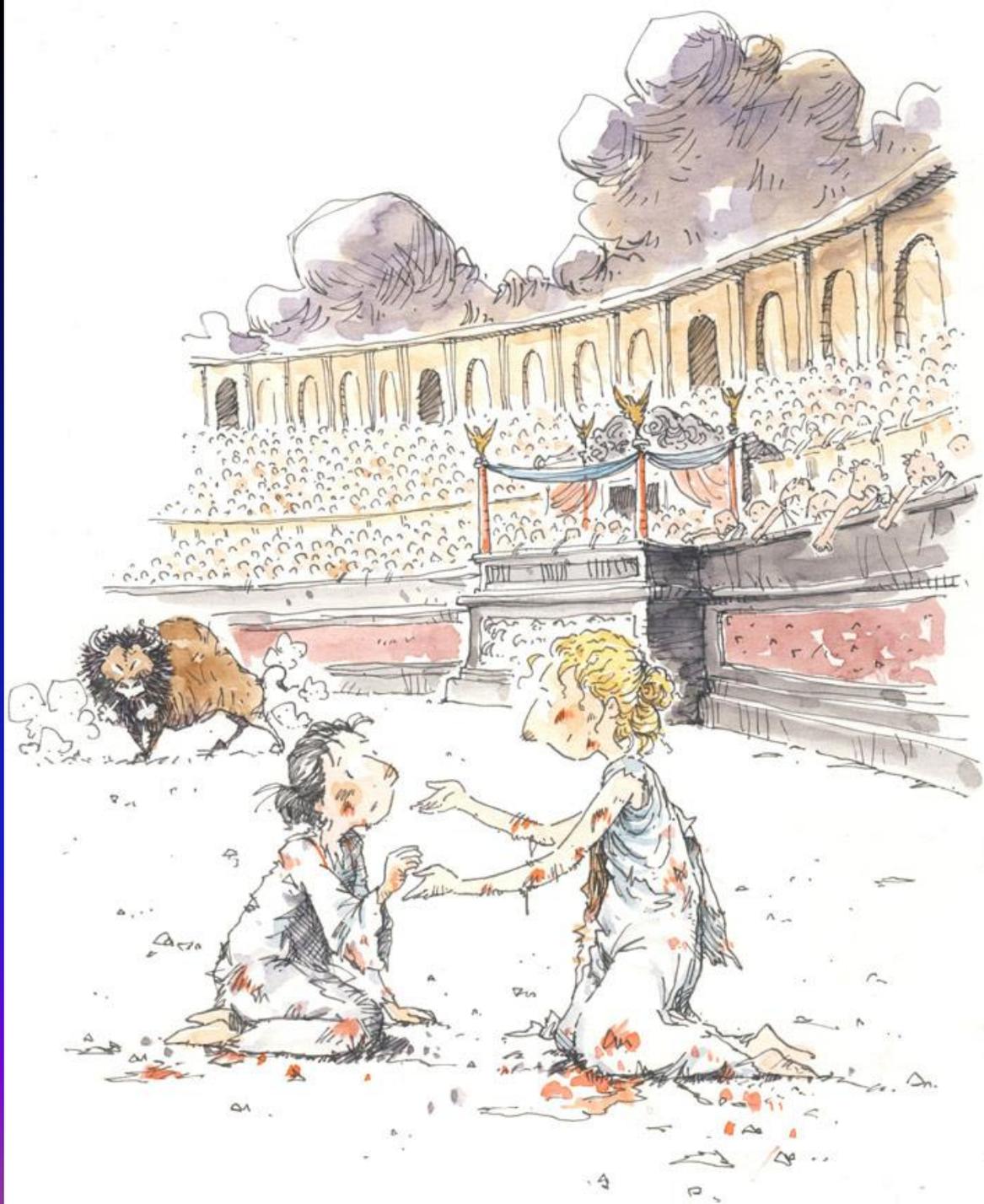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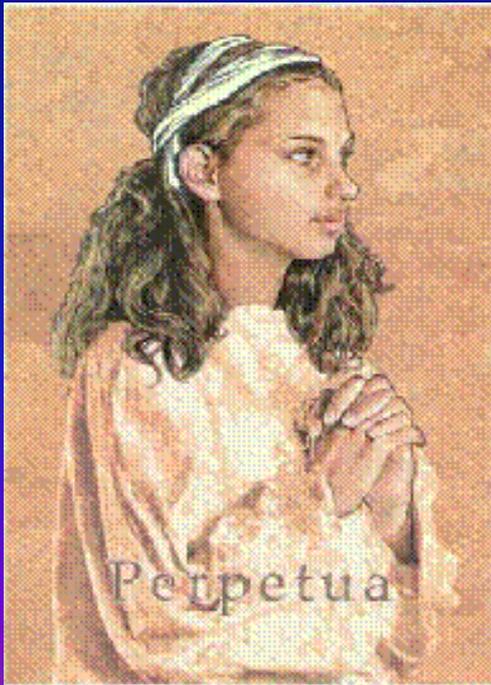
# 페르페투아

## 순교사화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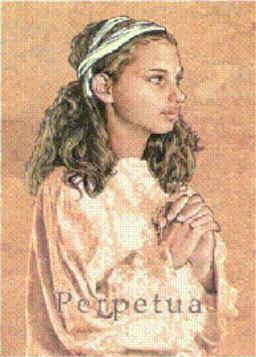
(R.E. 황제: Severus)



# 초대교회의 10대 박해 주기

64---100-----250-60-----303-13--380

차수	연도	로마 황제명	박해의 유형 및 범위	대표적인 순교자
1 차	64	네로	* 로마와 근교 부근에서 박해를 가했다. * 로마시 대화재의 책임을 재난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전가시켰다. * 네로의 궁전을 밝히기 위한 소위 '인간캣볼'로서 그리스도인을 화형에 처하였다.	바울 베드로
2 차	90년경 -96년	도미티아누스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시적이고도 산발적인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의 황제 숭배 거부로 비롯되었다.	로마의 클레멘트 사도요한이 밧모섬으로 유배됨
3 차	98-117	트라야누스	정차 박해가 강화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비애국적인 집단으로 규정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발견 즉시 처형되었다.	이그나티우스 시몬 조시무스 루프스
4 차	117-138	하드리아누스	황제 숭배는 계속되었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하는 자는 처벌되었다.	텔레스포루스
5 차	161-180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배격한 스토아주의자인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연재해의 장본인으로 규정하였다.	순교자 저스틴 포티누스 블란디나
6 차	202-211	셉티무스 세베루스	기독교로의 개종을 금지시켰다.	레오니다스 아레타우스 <b>페르페투아</b>
7 차	235-236	트라키아의 막시미누스	기독교 성직자를 처단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암살한 전임황제를 지지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우르술라 히폴리투스
8 차	249-251	데키우스	최초로 제국전체에 박해의 손길을 펼친 그는 황제 숭배의 향기로운 제물을 요구하였고 기독교의 완전한 파멸과 더불어 이교신앙으로 복귀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파비아누스 에루살렘의 알렉산더
9 차	257-260	발레리아누스	그리스도인의 재산을 몰수하며 그들의 공민권(公民權)을 박탈하였다.	오리겐 씨프리아 식스투스 2세
10 차	303-311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가장 혹독한 박해로서 교회는 파괴되었고 성서는 불태워졌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박탈위기에 처했으며 로마신들에게	마우리티우스 알바누스



# 페르페투아 순교사와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페르페투아는 로마의 고위 귀족 가문의 딸로서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살다가 202년 기독교인이란 죄목으로 붙잡혔습니다. 이듬해 3월 7일 원형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과 검투사의 칼날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 품 안에 젖먹이 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여러 차례 찾아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간곡히 애원하며 부탁했습니다. 어떤 날은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기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꽃병” 이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병을 꽃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으로 불릴 수 밖에 없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위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록 사람의 눈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으나,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간곡하게 위로합니다.

사탄은 젊은 여인들을 위해 미친 암소를 준비했다. 이는 이례적인 동물이었으며 그들의 성별에 맞추어 모욕을 주기 위해 암소가 선택된 것이었다. 그들은 번개번개였으며 그물을 씌워진 채 격투장에 나왔다. 군중들도 그들 중 한 명은 젊은 귀부인이요, 한 명은 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다.

결국 그들은 다시 들여보내져서 벨트 없는 옷을 걸친 채 다시 끌려 나왔다. 먼저 그 암소가 페르페투아를 반았고 그녀는 등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똑바로 앉아 갈기갈기 찢어진 옷을 잡아당겨 자신의 허벅지를 가렸다. 그녀는 고통보다도 정숙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다음에 그녀는 풀어진 머리를 메기 위해 땅에 떨어진 핀을 집어 들었다. 손교자가 자신의 승리를 애동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죽은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났다. 페리키타스가 땅에 내동댕이 쳐진 것을 보고 그녀는 손을 내밀어 일으켜서 둘이 함께 섰다. 하지만 군중들의 잔인성이 그 때 가라앉았으므로 그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여보내졌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루스티쿠스라고 하는 자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는 당시 예비신자였고 페르페투아와 가까이 있었다. 거기서 페르페투아는 마치 잠에서 일어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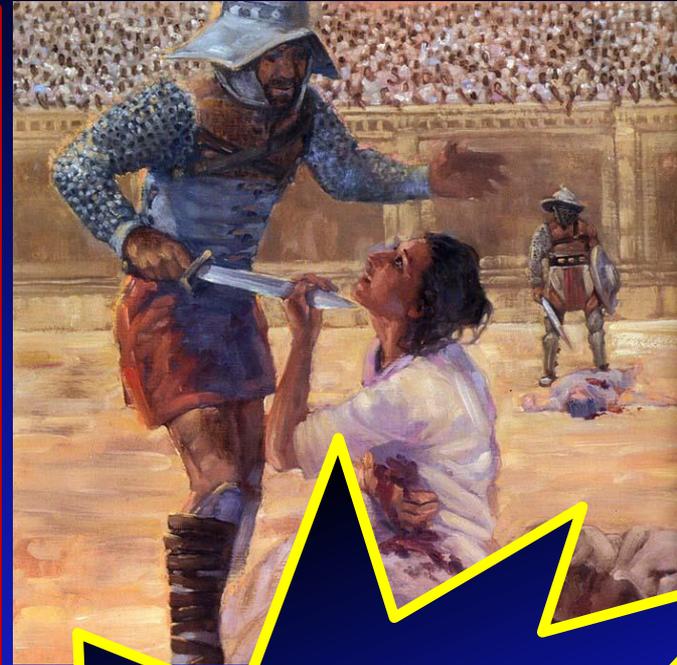
깨어 (그녀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 무아경에 빠져 있는 상태였다), 그녀 주위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놀라게 "우리가 언제 그 암소에게 던져질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몸과 옷에 상처를 볼 때까지는 이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녀의 동생을 불러 동생과 그 예비신자에게 말했다.

"믿음에 굳게 서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수난으로 나약해지지 말라."

# 페르페투아 순교사화

순교일: AD. 203년 3월 7일

하지만 군중들은 그들의 몸을 칼로 베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 그들이 보이는 곳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순교자들은 일어나서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스스로 나아갔다.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고 평화의 입맞춤의 예식으로 그들의 순교를 인 쳤다. 다른 이들은 모두 조용한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칼을 받았는데, 특히 계단을 처음 올라가서 첫 번째로 처형당한 사투루스는 더욱 그러했다. 다음은 페르페투아의 차례였다. 그녀의 경우 아직 고통의 맛을 더 보아야 했는지 칼날이 그만 뼈 사이를 빗맞았을 때 페르페투아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녀는 아직 초보였던 검투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 자신의 목에 갖다 대고 제대로 베어내도록 도와줬다. 아마도 너무나도 고귀한 그녀이기에 (더러움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 스스로의 희생에 의해서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이리라.



자발적 사랑!

# 박해와 기독교 변증

## 2세기 기독교 변증가들과 주요 작품

“이교세계는 기독교인에 대해 무신론, 근친상간, 인육식, 반정부 등등의 낙인을 찍어 공격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변증가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론, 도덕적 순결, 규모있는 예전, 충실한 시민상 등을 제시하며 기독교의 정당성과 타월성을 주장했다.”

김명역, 『초대교회의 형성』 (서울: 성광, 2000), 87.

# 밀라노 칙령 A.D. 313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왔다....

-지령-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내린 이상,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늘부터 모두 무효가 된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을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이 신앙을 완전히 인정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도에게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유는 다른 신을 믿는 자에게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도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하고자 한다.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에서 사들여서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포

# 초대교회의 신앙고백

"죽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리우스

325

니케아 공의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81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

에베소 공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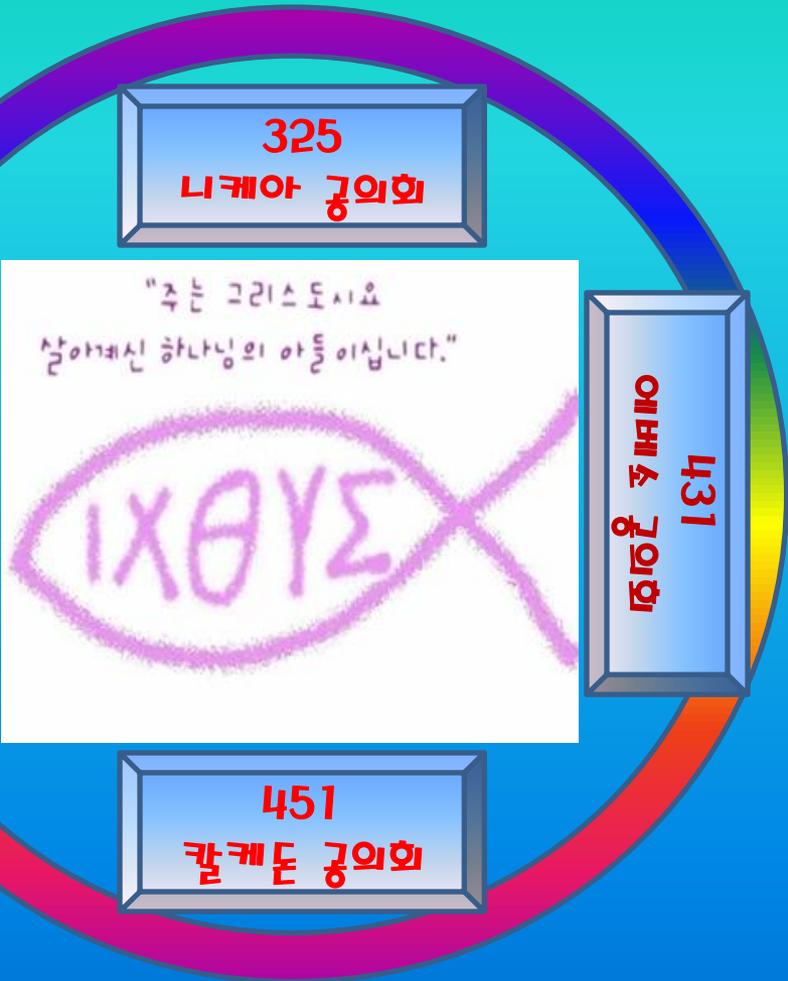
451

칼케돈 공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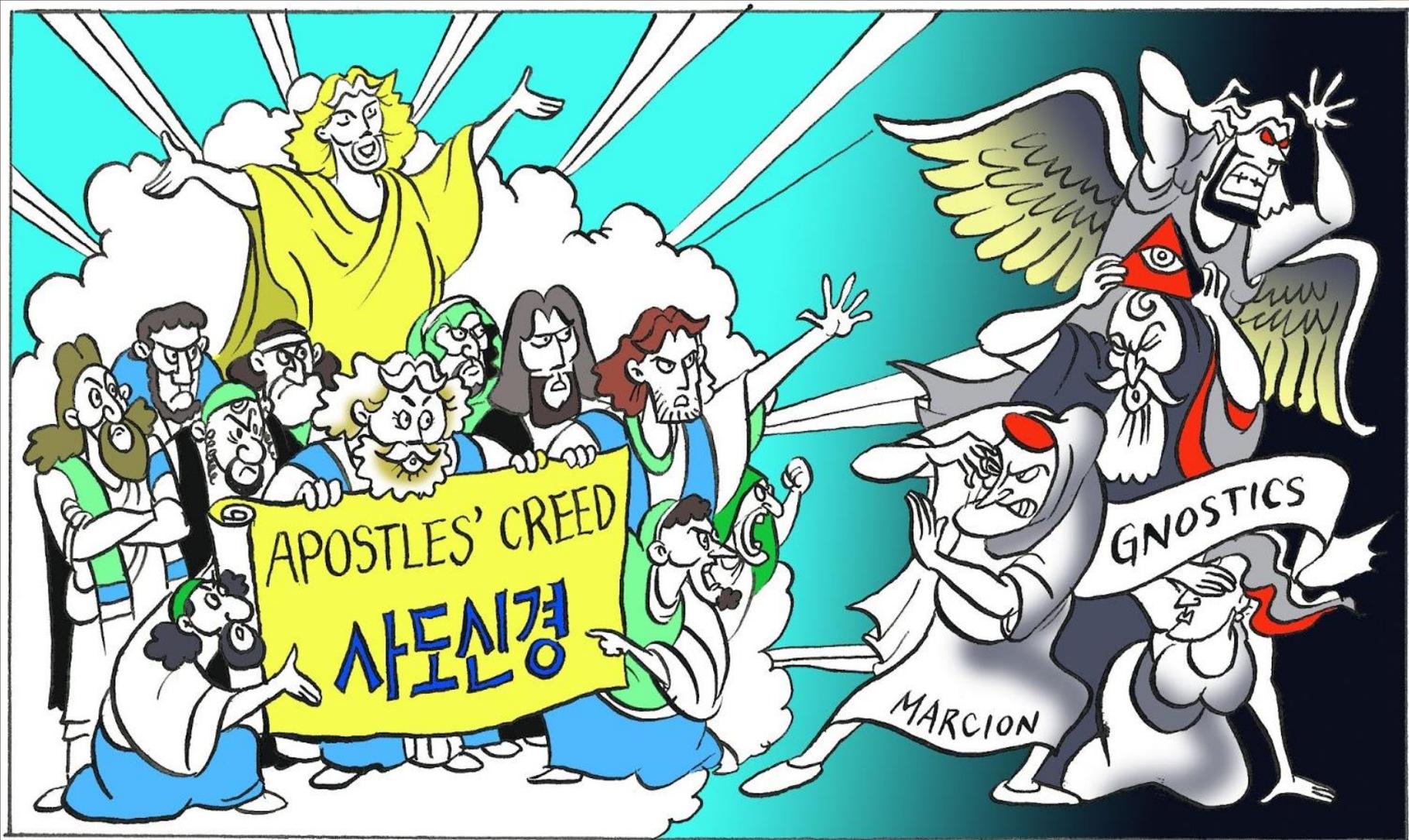
아풀리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우티케스



# 초대교회의 과제: 기독교회의 정체성



# 중세 교회의 수도원 운동

(The Medieval Church & Prayer)

## 수도원 운동

수도원 제도의 등장은 대위임령 이후 기독교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제도적 사건이었다. 콘스탄틴과 종교개혁 사이 천 년동안 복음의 가장 거룩하고, 고상하고, 진정한 사상에 도달한 교회의 거의 모든 일들은 수도원 방식을 택한 사람들이나 수도사들의 삶에 의해 영감 받은 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

# 역사적 배경: 제국교회 & 수도원 운동

밀라노 칙령 AD.313

전부터 우리(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두 사람  
늘부터 모두 무  
이 신앙을 완전  
유는 다른 신을  
완전한 신앙의  
효과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  
당한 기도처의  
에서 사들여서  
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기에 명기한다.

New Challenge

박해에서 **지배**로!

순교에서 **안정**으로!

다양성에서 **획일화**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 두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게 결박해에서 지배로! 지금까지 발령된 기독교 관계 법령은 오

다. 이 칙령은 관철하고 싶은 자는 아무 조건도 없

받는다는 뜻이다. 기독교가 인정된 이 완전한 신앙의 자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가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때문이기에 어떤 신이 어떤 주교도 명예와 존엄성이 훼손당

대해서는 특히 몰수

AD 313년 6월 밀라노에서  
로마의 두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리키니우스가 공포

# 역사적 배경: 제국교회 & 수도원 운동

## 수도원 운동의 시작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참 신자가 될 수 있는가? 교회가 세상 권력에 야합하고, 사치와 허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며, 사회 전체가 좁은 문을 넓은 길로 만들고 있을 때 신자는 그 시대의 엄청난 유혹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가?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궁극적인 순교의 증언이 불가능할 때, 신자들은 어떻게 머리 돌 곳도 없었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겠는가? 신자들은 어떻게 사회가 제공하는 명예의 유혹에 빠진 동료들을 사탄의 마수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수도생활에서 해답을 찾았다.** 즉 모든 재산을 버리고 인간 사회에서 벗어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육체와 정욕을 절제하는 생활이었다. 그리하여 큰 도시들의 교회들이 수천 명의 세례준비자들에 의해 에워싸여 있을 때, 또 다른 수천 명은 고독 속에서 복을 찾으려 진정한 탈출을 이루었다.

## A.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운동

### 1. 중세 수도원 운동의 계보

#1. 안토니 Anthony (c.270) - 이집트사막수도사 cf. 아타나시우스

#2. 파코미우스 Pachomius (c.320) - a. 이집트 첫 집단수도원 b. 수도회칙 지침 활용

#3. 대 바실리우스 Basil of Caesarea (c.370) - 370년경 카파도기아수도원 수도회칙 작성

#### 오늘날 정교회 수도원생활의 기본 지침

#4. 아타나시우스(4세기) - 수도원제도 강조

#5. 투르의 마르탱 Martin of Tours (d.360) - 프랑스에 첫 수도원 세우고, 북유럽에 선교.

#6. 요한 카시아누스 John Cassian (5세기초) - 프랑스남부. 동방수도원의 전통을 소개.

#7. 누르시아의 베네딕트 Benedict of Nursia (c.480-547) - 수도원 운동에 가장 큰 영향

a. 몬테 카시노에 수도원을 세움

b.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서 - 중세 수도원 운동의 교과서적 지위를 차지함

**베네딕트**  
*The Rule*  
A.D. c.500



Primary S  
docume

008

K I A T S 기 독 교 영 성 선 집

# 베네딕트의 규칙서

5세기 이탈리아 누르시아의 베네딕트가  
청빈, 순종, 순결의 영성에 기초해 기록한  
천국을 향한 수도원 공동체 신앙의 이정표

권혁일 · 김재현 번역

KIATS

## 2. 베네딕트의 규칙서 (*Regula Sancti Benedicti* c.500)

### 1) 특징

- #1. 광신주의를 배격
- #2. 영지주의, 가현설, 비건전한 금욕주의를 통제
- #3. 주관주의로 치중하는 경향에 대해 **성경이 핵심이라는 믿음**을 고수함
- #4. 종교적 경험과 노동, 연구, 식사, 수면 등의 현실적인 실재를 접목시킨 일
- #5. 베네딕트의 3대 서약 "청빈, 순결, 복종"

### 2) 성경 연구

- #1. **“간단히 말해 수도원 제도는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Mark Noll
- #2. 성경 인용, 암송, 시편 연구
- #3. 중세 수도원 - 성경 보존, 필사, 연구의 전통. 종교개혁에 큰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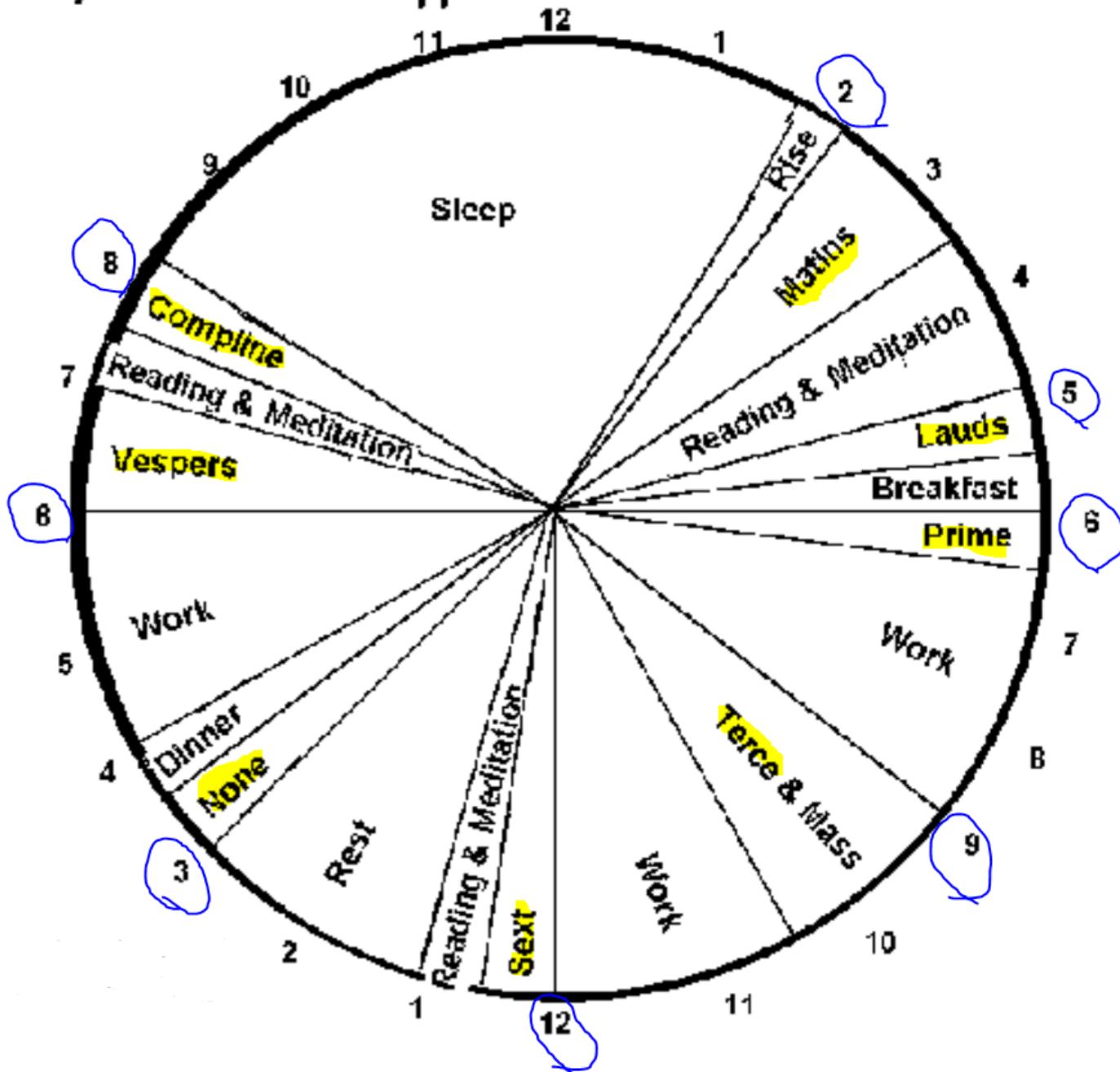
### 3) 기도 생활

- #1. 하루 일곱 번의 기도 (시 119:164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 #2. 성무일과(聖務日課, Divine Office): *Opus Dei* (하나님의 일)

### 4) 의의

- #1. 수도원 생활의 이상을 제공한 일 - 수도원 갱신 운동에 영향
  - 10세기 클뤼니 / 11세기 시토 / 13세기 탁발 수도회 운동
- #2. 크리스천의 삶의 중심에 기도를 위치시킴

# The Divine Office or Canonical Hours



## B. 신학의 발달

### 1. *Lectio – Contemplatio – Questio*

#### 1) 중세 신학의 태동

#1 수도원 기도로의 기본 구조: “lectio-meditatio-quaestio”

#2. Questions 의 심화 - 구분의 방법론(*Distinctions*)

Ex. 피터 아벨라르 Aberlard(d.1142)의 Sic et Non  
피터 롬바르드 Lombard(d.1164)의 Sentences

#### 2) 중세 스콜라 신학의 발전

#1. 전통적인 “lectio-meditatio-quaestio”를 계승

#2. 새로운 요소: *Disputatio* 방법론의 정교한 발전

- a. Status quaestionis (Statement of Problems)
- b. Objections
- c. 정통적/전통적 입장 진술/주장
- d. Refutation

Ex. 토마스 아퀴나스 Aquinas(d.1274)의 Summa

### 2. *Visio Dei*

아우구스티누스: “When a mind is filled with the **beginning of that faith** which **works through love**, it progresses by a good life **even toward vision**, in which holy and perfect hearts know that unspeakable beauty the full vision of which is the highest happiness. **Beginning with faith and ending with vision. This is what the whole body of doctrine with vision”** – *Enchiridion*

# 의의: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

## 1. 의의

#1. 중세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연계성

#2. 기도: 신학과 교육

#3. 실천: *Opus Dei* & 매일의 기도 (시 119:164)

## 2. 한계

#1. 공로주의, 고행주의, 성속이원론, 신비주의

#2. 예배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함

헨리 수소  
*The Exemplar*  
A.D. 13b1-b3



Prin  
do



# 복음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와 진리가 충만(充滿)하더라



# 의의: 중세교회 수도원 운동

## 1. 의의

#1. 중세 수도원 운동: 말씀과 기도 연계성

#2. 기도: 신학과 교육

#3. 실천: *Opus Dei* & 매일의 기도 (시 119:164)

## 2. 한계

#1. 공로주의, 고행주의, 성속이원론, 신비주의

#2. 예배개혁으로 연결되지 못함

종교개혁? 미사 중심의 예배를 말씀과 기도중심의 예배로 개혁!

T.P.(전환점) #3

A.D. 7-8세기

이슬람의 팽창과 프랑크왕국

# #3. 이슬람의 팽창과 신성로마제국



(중세의 시작)

# 피렌 테제: 모하메드와 샤를마뉴!

L'Islam a rompu l'unité méditerranéenne que les invasions germaniques avaient laissé subsister. C'est là le fait plus essentiel qui se soit passé dans l'histoire européenne depuis les guerres puniques. C'est la fin de la tradition antique. C'est le commencement du Moyen Age. [...] Il est donc rigoureusement vrai de dire que, sans Mahomet, Charlemagne est inconcevable.

이슬람은 게르만 침입에도 불구하고 존속했던 지중해의 통일성을 파괴했다. 이것은 포에니 전쟁 이래 유럽사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것은 고전 전통의 종말이다. 이것은 중세의 개막이다. 따라서 마호메트가 없는 샤를마뉴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엄연한 진실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프랑크 왕국

# 중세 기독교 제국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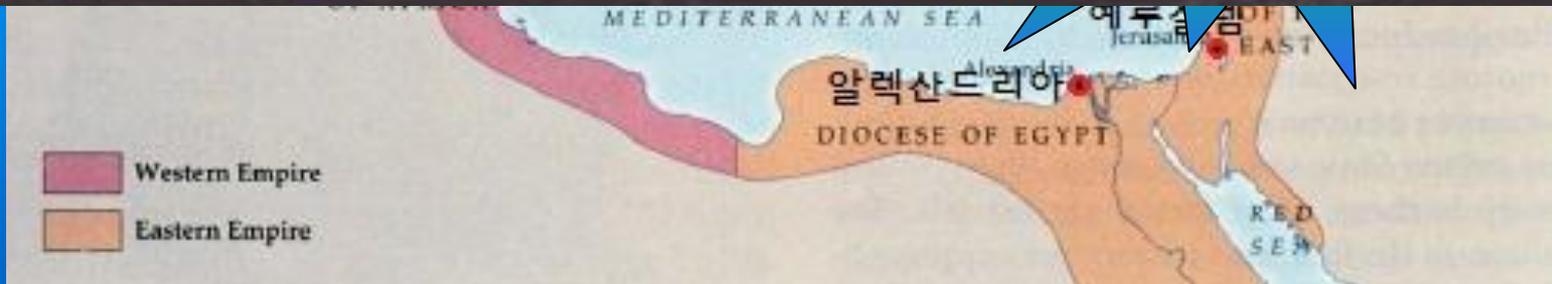
T.P.(전환점) #4

A.D. 10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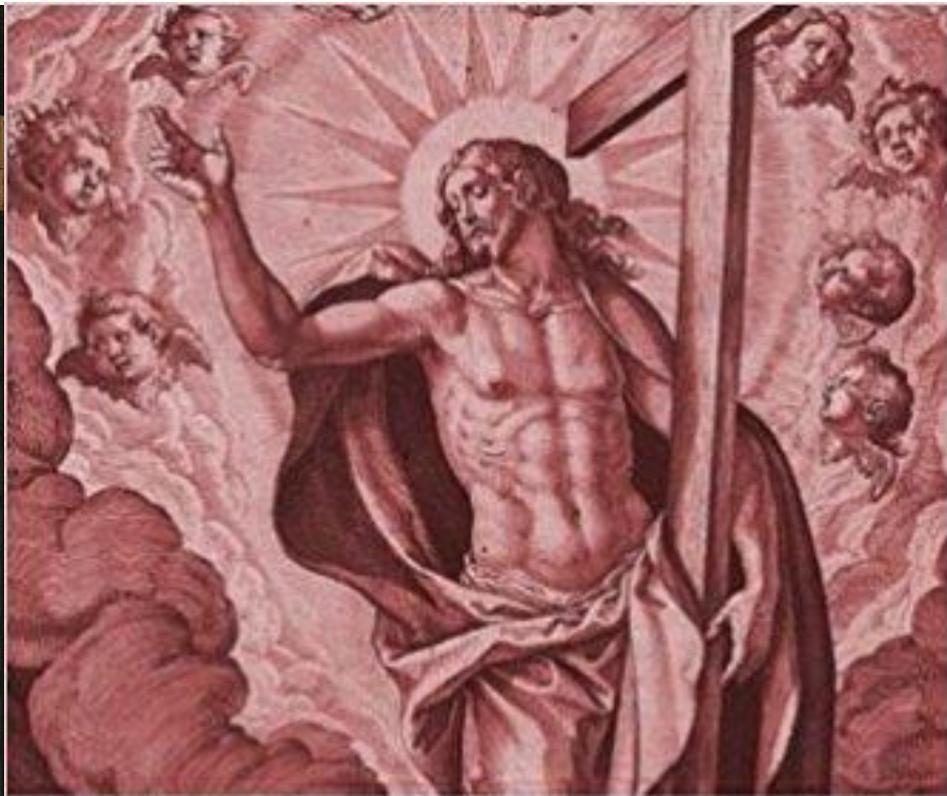
대분열 (동서교회)

# 동서교회의 대분열 (Great Schism, A.D.1054)

쟁점	서방	동방
	라틴 문화 (cf. 터툴리안)	헬라 문화 (cf. 클레멘트)
필리오케	Yes (589 톨레도 공회)	NO
성상	Yes	No (7-8세기 성상파괴)
성찬	무고병	유고병
통치제도	고황	공의회
독신제도	Yes	Only for 고위성직자
삼위일체	“일체” Oneness	“삼위” Threeness
속죄론	십자가의 희생 (sacrifice)	부활의 승리 (Christus Victor)
구원/인간론	구속을 강조 (Redemption)	신격화 (Deification)
예배	라틴어	토착어 (방언)



ישוע מנצח סרפופ  
ΙΗΣΟΥΣ ΝΑΖΩΙΟΥ ΒΑΣΙΛΕΥΣ ΙΟΥΔΑΙΩΝ  
IESVS NAZARENVS REX IVDÆORVM



**CHRISTUS  
VICTOR**  
*Gustaf Aulé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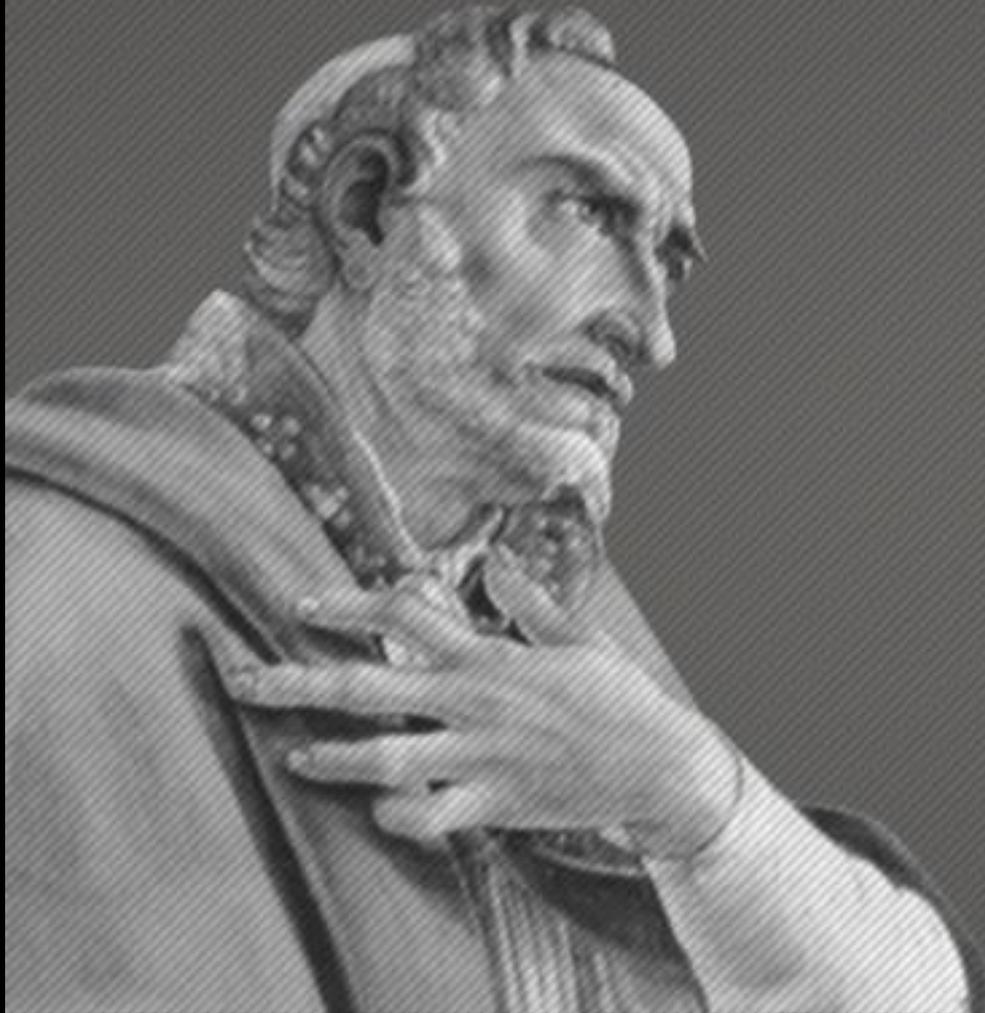
# 동서교회의 대분열 (Great Schism, A.D.1054)

쟁점	서방	동방
	라틴 문화 (cf. 터툴리안)	헬라 문화 (cf. 클레멘트)
필리오케	Yes (589 톨레도 공회)	NO
성상	Yes	No (7-8세기 성상파괴)
성찬	무고병	유고병
통치제도	고황	공의회
독신제도	Yes	Only for 고위성직자
삼위일체	“일체” Oneness	“삼위” Threeness
속죄론	십자가의 희생 (sacrifice)	부활의 승리 (Christus Victor)
구원/인간론	구속을 강조 (Redemption)	신격화 (Deification)
예배	라틴어	토착어 (방언)

대 분열 = R.C.의 독립? AD.1453 동로마제국의 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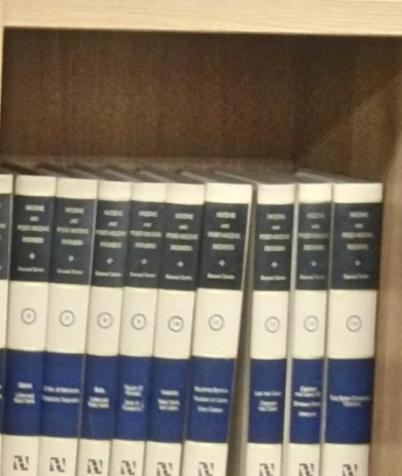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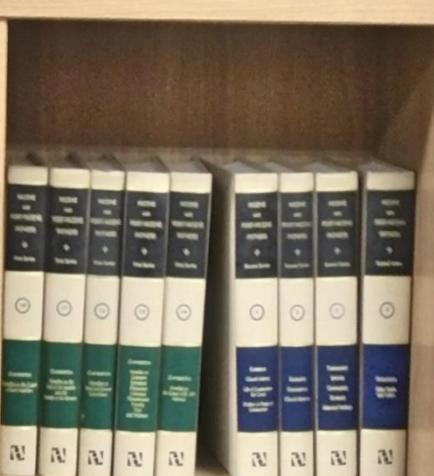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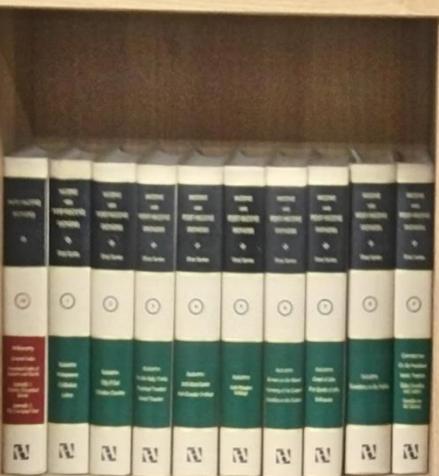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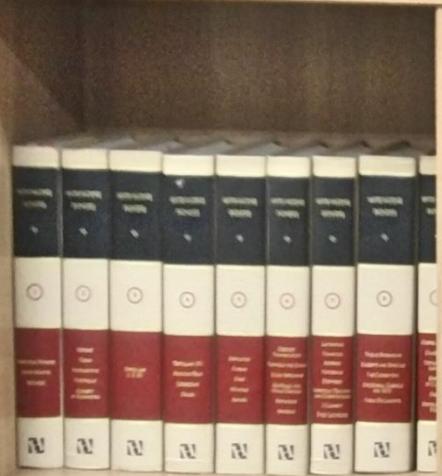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354-430)



AUGUSTINE  
OF HIPPO

354-430



#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성경론: 성경과 성경해석

구원론: 은총론, 견인, 율법과 복음

신론 & 인간론: 예정론, 자유선택론

교회론: 가견교회, 성례론

R. & POST-R. 신학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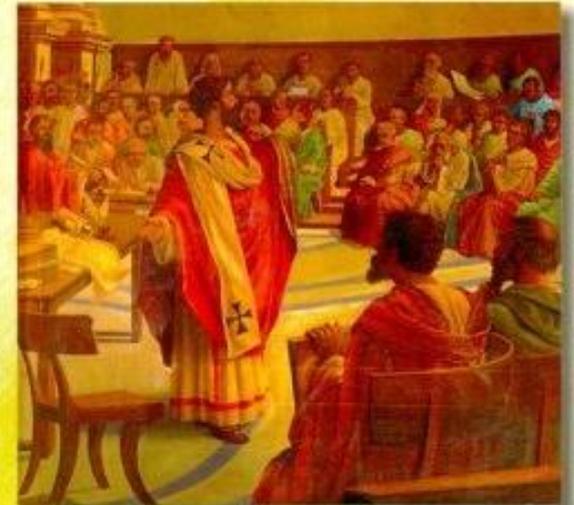
아우구스티누스  
*Enchiridion*

A.D. 419-22



Primary Source  
document

The  
*Augustine*  
**Catechism**



**The Enchiridion on Faith,  
Hope, and Love**

*Augustine of Hippo*

introduction by Boniface Ramsey, O.P.

## A. 프롤로그 (Prologue)

- 하나님을 예배함: 믿음, 소망, 사랑
- 사랑(율법 Law), 믿음(신조 Creed), 소망(주기도문 Lord's Prayer) 불가분리.

## B. 믿음 - 신조 (The Apostle's Creed)

- #1.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 #2.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 #3. 성령과 교회에 대한 믿음
- #4. 믿음과 사죄
- #5.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

## C. 소망 -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 #1. 마태복음 - 일곱 개의 간구
- #2. 누가복음 - 다섯 개의 간구

## D. 사랑 - 율법 (The Law)

- #1. 사랑의 우월성
- #2. 겸손에 이르는 네 단계
  - Before the Law
  - Under the Law
  - Under Grace
  - In Full & Perfect Peace
- #3. 십계명의 목적은 사랑이다 (마 22:40)

[인용] 인류는 죄로 인해 매우 큰 비참함 속에 억눌렸다. 이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2:32)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이유다. 이 말씀을 인용하는 사도는... 다음의 내용을 덧붙인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롬 10:14).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조(Creed)를 가진 이유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는 이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된다. “신앙은 믿고, 소망과 사랑은 기도한다.” 물론 소망과 사랑은 믿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믿음 역시 기도한다. 이것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라고 바울이 말한 이유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성경론: 성경과 성경해석

**구원론:** 은총론, 견인, 율법과 복음

신론 & 인간론: 예정론, 자유선택론

교회론: 가견교회, 성례론

## R. & POST-R. 신학 논쟁



**A-신학전통: 구원론**

# **1. 은총론**

## **(The Doctrine of Grace)**

고백록

*Confession*

A.D. 397



Primary Source  
documents



숨은 가수 찾기

숨은 가수 찾기

HIDDEN SINGER



# 아우구스티누스, 가면을 벗어 버리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Book 2, C

Ecce cor meum, deus, ecce cor  
meum quod miseratus es in imo  
abyssi. Dicat tibi nunc ecce  
cor meum..

- 어거스틴의 『고백록』 2.4.

이유는 그 일이 바로 금지  
그것이 바로 나의 **진심**이어서  
**진심**이어서입니다! 그러나 당신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저에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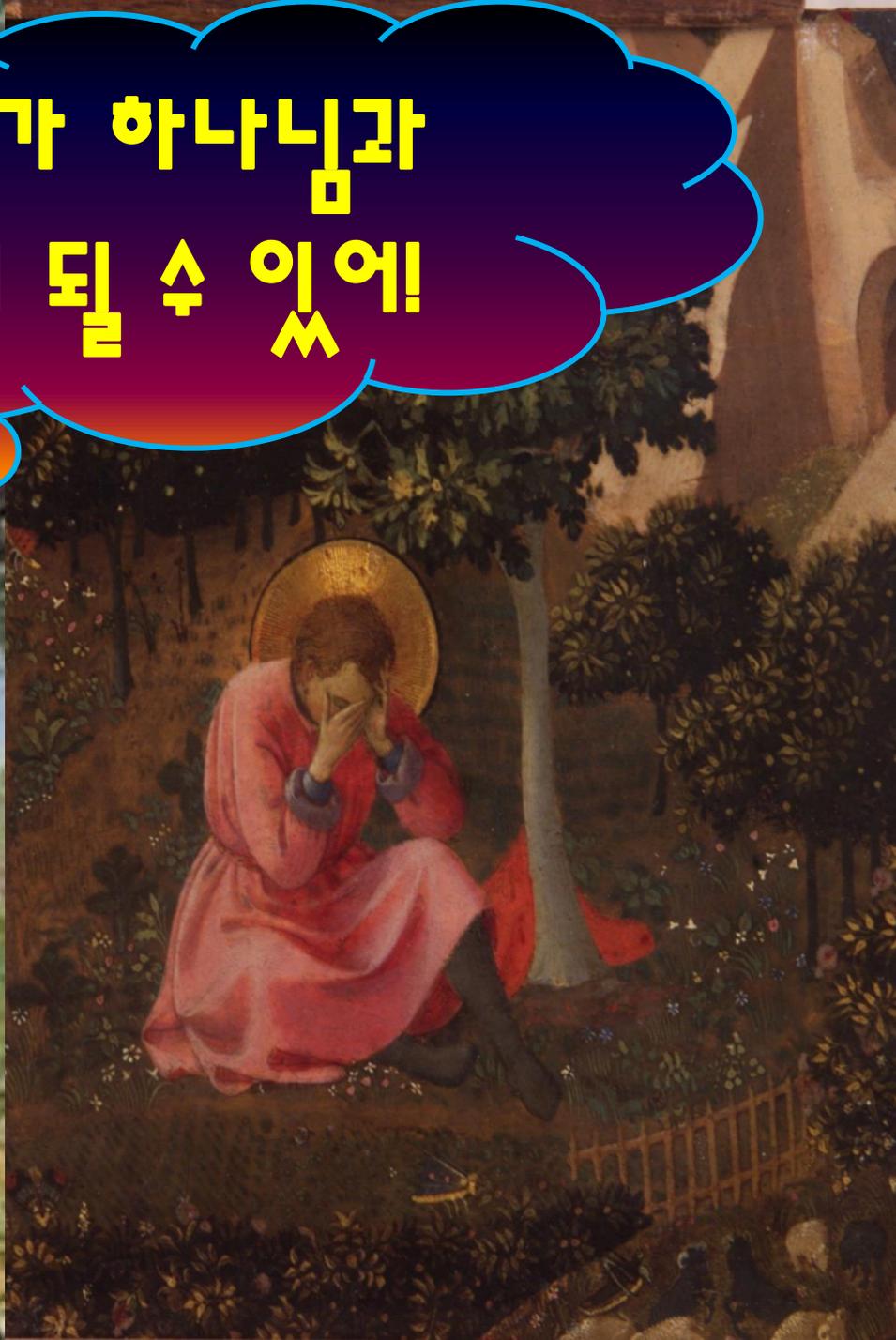
인혜!



아우구스티누스 (d.430)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 다윗의 회개: 새 마음의 발견

(3) 무릇 나는 내 죄악을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곁에 있나이다.

(5)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나이다.

행위

행위

존재

9 Hide your face from my sin,  
and blot out all my iniquities.  
10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and renew a right<sup>3</sup> spirit  
within me.  
11 Cast me not away from your presence,  
O God, the God of my salvation,  
lest you not your Holy Spirit from me.

(10) 하나님이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 2. 바세바 사건 & 다윗의 눈물: 11-12장; 시편 51편

### 다윗의 범죄, 실수인가? 그의 본색인가?

1) **시51:5-b** - 다윗의 회개 포인트는 그의 행위적 실수를 회개하는 것보다 그의 본성적인 “죄성” (sinful nature) 으로 회개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된 재료로 구성되었음을 고백 하는 것이다.

2) **시51:10** - 회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 더러워진 마음을 “개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던 새 마음을 “창조” 하는 것이 곧 회개를 통한 성령의 재창조의 사역이다. Cf. 새 언약의 성취 - “새 마음” 겔36:26

시편 32편, 시편51편: “회개의 복을 누리자!”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 **2. 계인의 은혜**

**(The Doctrine of Perseverance)**

# 칼뱅, 『피기우스 논박』 (1543)

## 제3권 <아우구스티누스는 칼뱅을 지지한다>

#1. **인간의 의지**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의에 순종할 수도 없다.

#2 하나님은 신자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만드신다.

#3 인간의 의지는 자기의 자유를 통해서 은총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은총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다.**

#4 우리가 의지를 행사할 때 의지를 행사하는 자는 분명히 **우리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에 의지를 행사하도록 만드는 분은 그분이다.** 우리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자는 분명히 **우리다.** 그러나 의지에 충분히 **효과적인 능력**을 공급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자는 그분이다.**

#5. **[견인의 은혜]** **믿음은 시작에서나 완성에서나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예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견디게 해주는 은총이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밀스럽고 동시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현명한 그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진다.

#6. **[성화의 은혜]** 선을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시작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결론**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 3. 율법과 복음 (The Law & The Gospel)

# 아우구스티누스: 율법과 복음

##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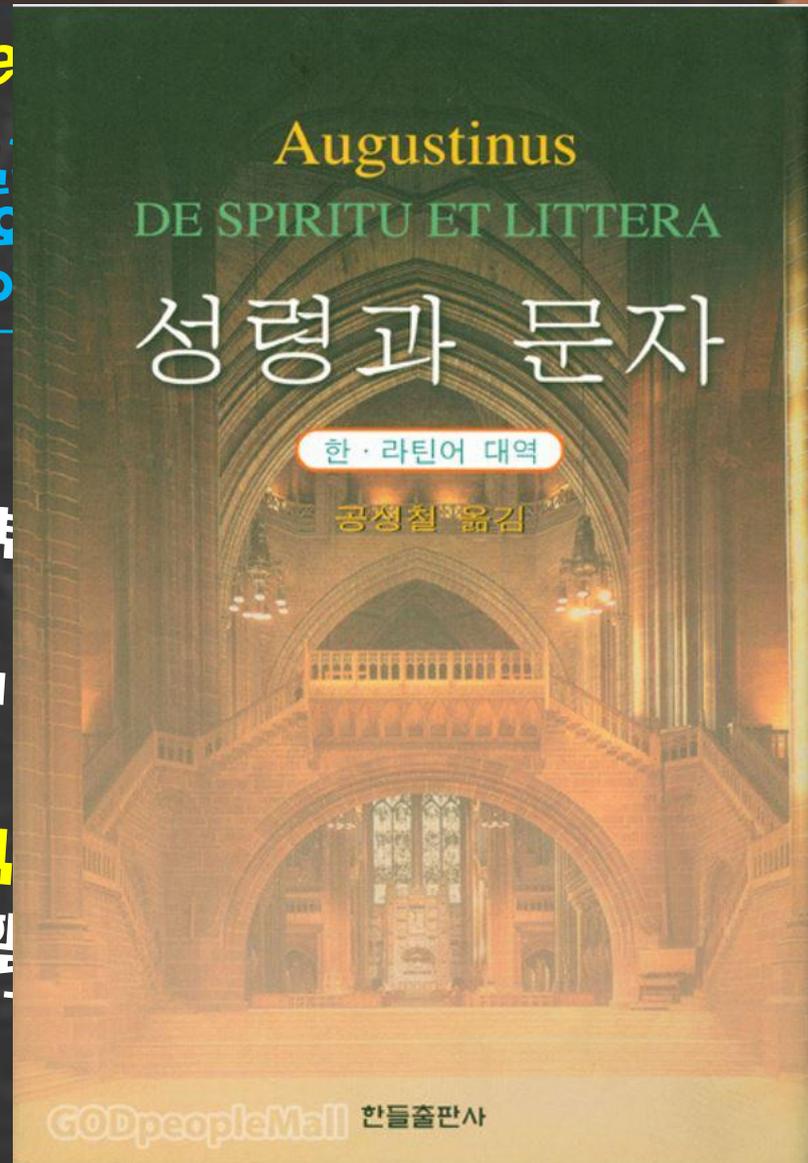
(고후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 #1. 율법과 복음

- “율법은 인간에게 자신의 약  
해서 하나님의 자비로 도피하고  
실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 #2. “율법의 행위” 에 대한 해석

- 펠라기우스는 이것을 외적인 행  
고 보았다. 반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파악했다.



# 아우구스티누스: 율법과 복음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영과 문자, c.412)

## #3. 하나님의 의

- “하나님의 의” .. 이것에 의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 입게 하시려는 의이다.” (15)

## #4. 율법과 은혜

- “행위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문자가 아니라 영에 의해서, 우리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려는 은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성경론: 성경과 성경해석

구원론: 은총론, 견인, 율법과 복음

**신론 & 인간론:** 예정론, 자유선택론

교회론: 가견교회, 성례론

R. & POST-R. 신학 논쟁



# 아우구스티누스 작품의 세 그룹 - “저술시기를 고려할 것”

by 칼빈 *Responsio contra Pighium de libero arbitrio* (1543)

## 첫째 그룹 : 펠라기우스 이단들이 반항하기 이전에 저술한 것들

AD 388/395	(자유선택) - Contra 마니교
AD 392/393	(두 영혼) - Contra 마니교
AD 389/391	(참 종교)
AD 387/388	(영혼의 위대함)
AD 397	(파우스트와 펠릭스 논박)

## 둘째 그룹 : 펠라기우스 이단들과의 전투가 격렬했을 때 출판한 것들

AD 413/415	(본성과 은총)
AD 420/421	(펠라기우스주의자의 두 편지 논박)
AD 412	(영과 문자) On the Spirit and Letter Cf. 세 번째 그룹으로도 분류!
AD 418	(그리스도의 은총과 원죄) On the Grace of Christ & Original S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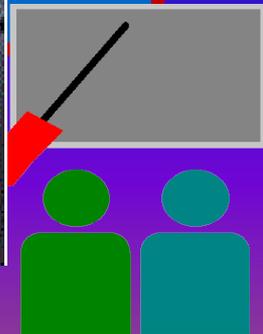
## 셋째 그룹 : 논쟁의 열기가 사라지고 잠잠해졌을 때 저술한 것들

AD 412	(공로와 죄 사함)
AD 426/427	(은총과 자유선택)
AD 412	(영과 문자)

(Calvin)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 우리의 의지에 의존한다는 이유로 신앙을 우리의 자유로운 통제 안에 두었다. (<- Pi 강조점)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능력이 하나님의 예외적인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지 우리의 자유선택에 의해 나온 것은 아니며, 믿으려는 의지는 본성적인 선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만들어지고 형성된다고 증거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각성시키지 않은 채로 어떤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글복시키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선택론

# 펠라기우스의 도전



#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원칙: 신비를 보존

## 하나님의 예지와 인간의 자유선택은 양립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의 능력 안에 무엇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이 예지한다고 하여, 우리의 의지 안에 어떤 것도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을 예지하는 분에게는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양자택일을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즉 하나님의 예지를 옹호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선택을 없애버리거나 혹은 자유선택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신성모독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사를 예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양자 모두를 수용한다. 둘 모두를 믿음과 진실함으로 신앙고백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결코 하나님의 예지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도움으로 현재 자유로우며, 미래에도 자유로울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선택론

\* *On the Spirit and the Letter* (영과 문자, c.412)

“은혜는 선택의 자유를 폐하지 않고 도리어 세운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의 자유를 폐하는가?”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굳게 세운다.”

Compatibilism  
양립가능주의

#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선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

God from all eternity, did, by the most wise and holy counsel of His own will, freely, and unchangeably ordain whatsoever comes to pass; yet so, as thereby neither is God the author of sin, nor is violence offered to the will of the creatures; **nor is the liberty or contingency of second causes taken away, but rather established.**

1) 영 1:1, 롬 8:30, 16:25, 17:1, 18:2, 22:1, 23:1, 24:1, 25:1, 26:1, 27:1, 28:1, 29:1, 30:1, 31:1, 32:1, 33:1, 34:1, 35:1, 36:1, 37:1, 38:1, 39:1, 40:1, 41:1, 42:1, 43:1, 44:1, 45:1, 46:1, 47:1, 48:1, 49:1, 50:1, 51:1, 52:1, 53:1, 54:1, 55:1, 56:1, 57:1, 58:1, 59:1, 60:1, 61:1, 62:1, 63:1, 64:1, 65:1, 66:1, 67:1, 68:1, 69:1, 70:1, 71:1, 72:1, 73:1, 74:1, 75:1, 76:1, 77:1, 78:1, 79:1, 80:1, 81:1, 82:1, 83:1, 84:1, 85:1, 86:1, 87:1, 88:1, 89:1, 90:1, 91:1, 92:1, 93:1, 94:1, 95:1, 96:1, 97:1, 98:1, 99:1, 100:1

# 개혁신주의 예정론, & 인간의 자유의지

(개혁신주의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부정한다는 편견에 대하여)

“오히려 정반대로 칼뱅과 개혁신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로움—특히 강제로부터—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만 인간의 타락 (죄성)과 은혜,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인간의 자유선택을 반대한 것이다. 이외의 세상만사에 대해서 개혁신주의 교리는 우유성(contingency)-특히 otherwise의 차원-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Richard A. Muller (리처드 멀러)



#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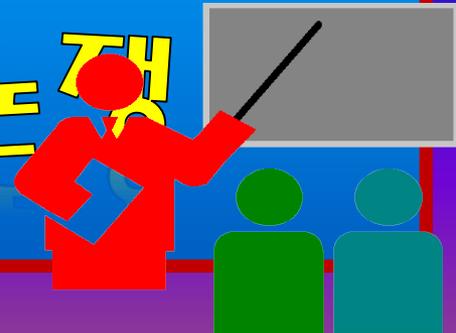
성경론: 성경과 성경해석

구원론: 은총론, 견인, 율법과 복음

신론 & 인간론: 예정론, 자유선택론

교회론: 교회, 성례, 하나님 나라

R. & POST-R. 신학논쟁



**A-신학전통: 교회론**

**하나님 나라(신국론)**

**(The Kingdom of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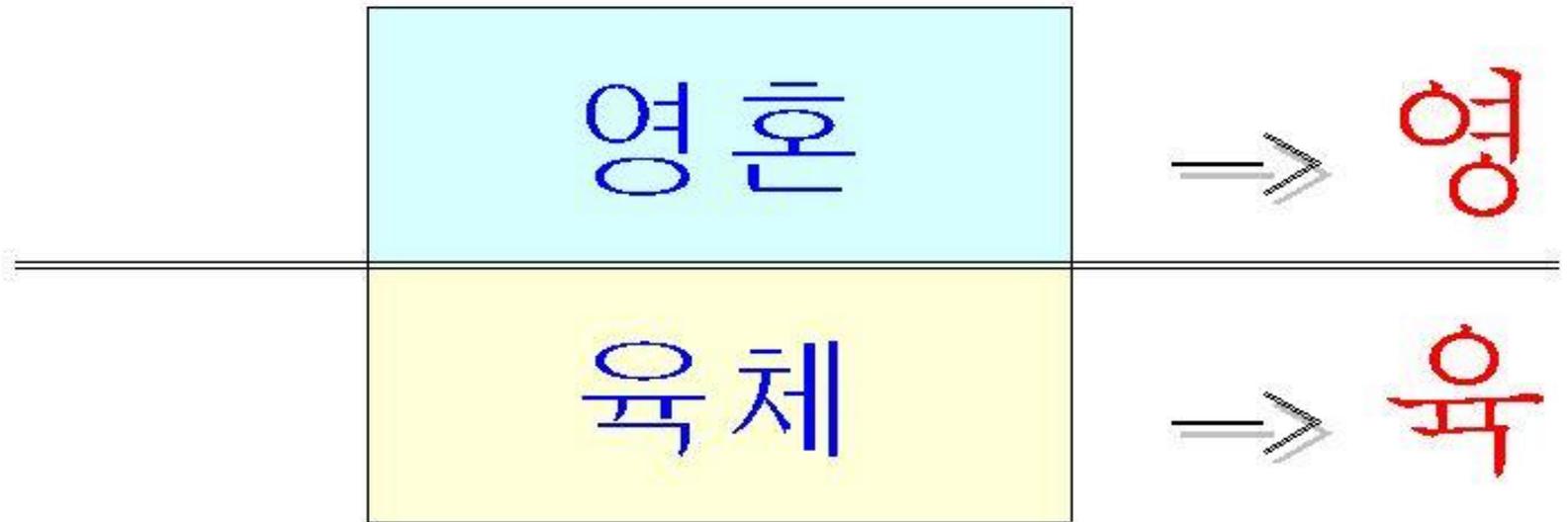
개혁주의 전통: 영역 주권론

문화변혁적 세계관

(Reformed: Transforming Culture)

# 육과 영 = Body & Soul?

< 헬레니즘(그리스) 세계관 >



聖  
계몽

고 회

에 배

찬양/기도

헌금/봉사

섹 스

정 치

사 업

가 정

취 미

오 락

예 술

교 육

스포츠

동식물

俗  
속담

# 성숙 이원론

신앙과 연장의 분리?

# 육과 영 = 통치의 개념!

<히브리식 사고>

하나님통치

영

영 혼

사탄 통치

육

육 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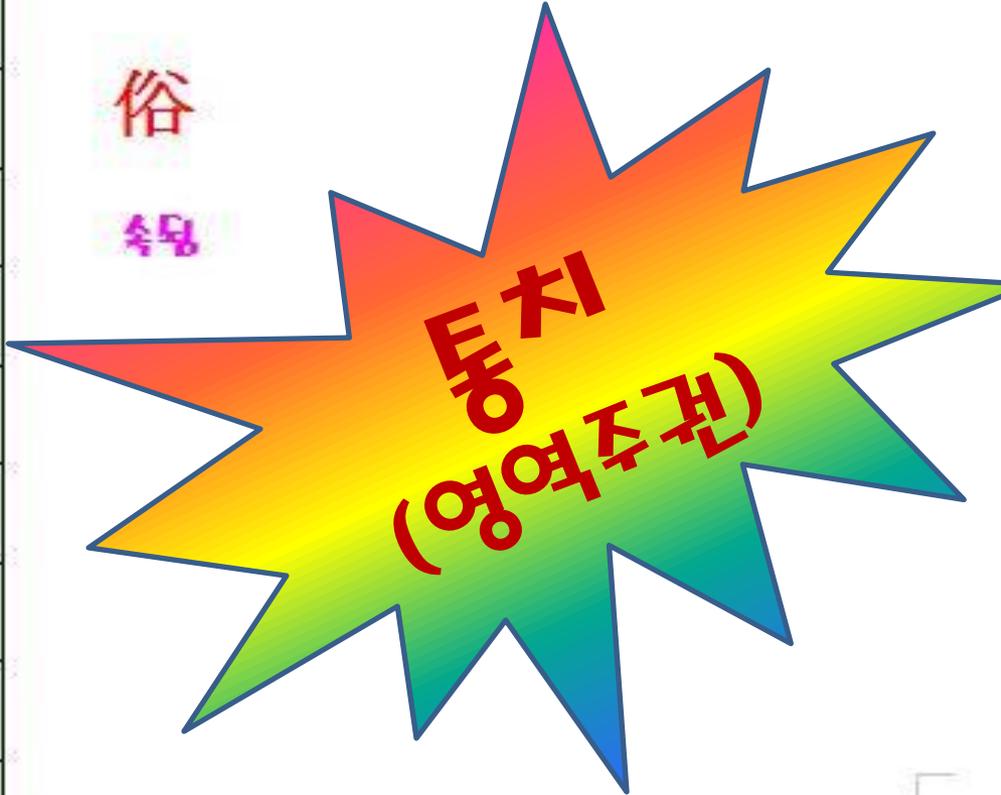
聖  
계령

고 회
에 배
찬양/기도
헌금/봉사
섹 스
정 치
사 업
가 정
취 미
오 락
에 슬
고 육
스포츠
동식물

기독교 세계관  
모델

俗

속당



통치  
(영역주권)

아우구스티누스 전통

하나님 나라와

세상나라

(City of God vs. City of Man)

## 두 도성 (Two Cities)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 기초?

**하나님 사랑  
(The Love of God)**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의 도성  
(City of Man)**

• 기초?

**자기 애  
(The Self-Love)**

**육에 속한 사람**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4.4

“나는 앞에서 서로 다르고 반대되는 두 도시가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라 살  
때에는 마귀와 같다.

#2.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 때에는 자기 자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10권.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 포르피리오스와 마법의 거짓된 주장, 천사들, 그리스도 교적 제사. 플라톤주의자들은 보편적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어떤 이들에게 존재하는가?  
22권. 창조와 부활, 기적은 아직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환상.



# The

## Story of the Bible



# 기독교회의의 탄생



Origen, Jerome, Clement, Chrysostom, Irenaeus, Tertullian, Cyril, Augustine, Justin Martyr etc. / Socrates, Sozomen, Eusebius, Epiphanius etc.

# 1. 창세기

# 창세기, 인류 보편사?

4 사건들				4 족장들			
Creation	Fall	Flood	Nations	 Abraham	Isaac	Jacob	Joseph

**아브라함 언약 = 이방인을 위한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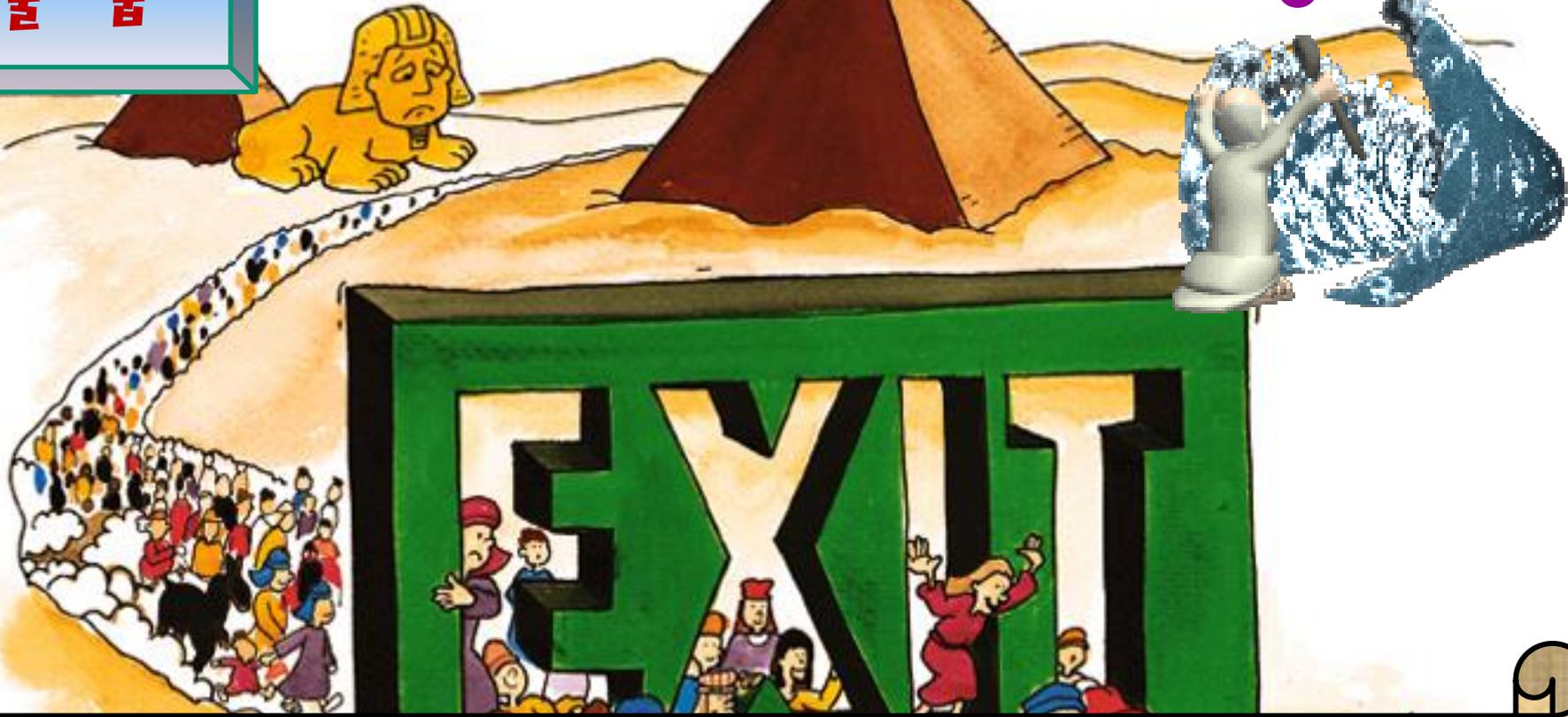
“또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만민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갈 3:8)

## 2. 출애굽기

“해방”



이스라엘 = 언약 공동체 (Not 혈연공동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육십만 가량이요  
수 많은 잡족 (many other people / a mixed multitude) 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 12:37-38)

3. 선지서

앗시리아

구원/심판  
나중구원

요나 & 나훔

이스라엘의 죄? = 이방 구원의 실패!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사야 26:18-19)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이방나라들

### 3. 선지서

앗시리아

요나 & 나훔

말라기의 예언: 이방나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말1:11)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

이방나라들

## 4. 세례요한

내려놓음



내려놓음

세례요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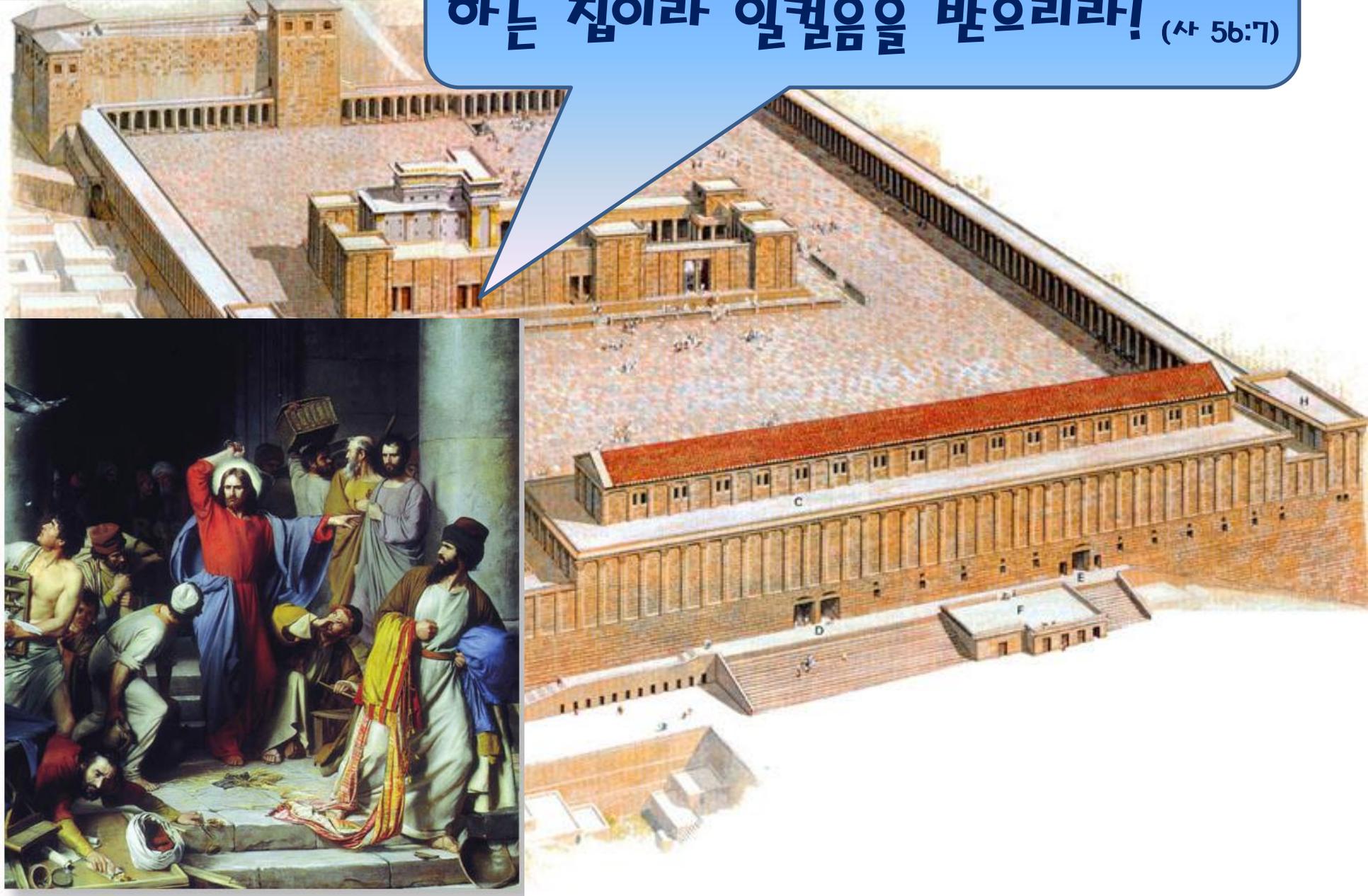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눅3:4-6)



## 5. JX의 천국운동

내 집은 만민(all nations)이 기도  
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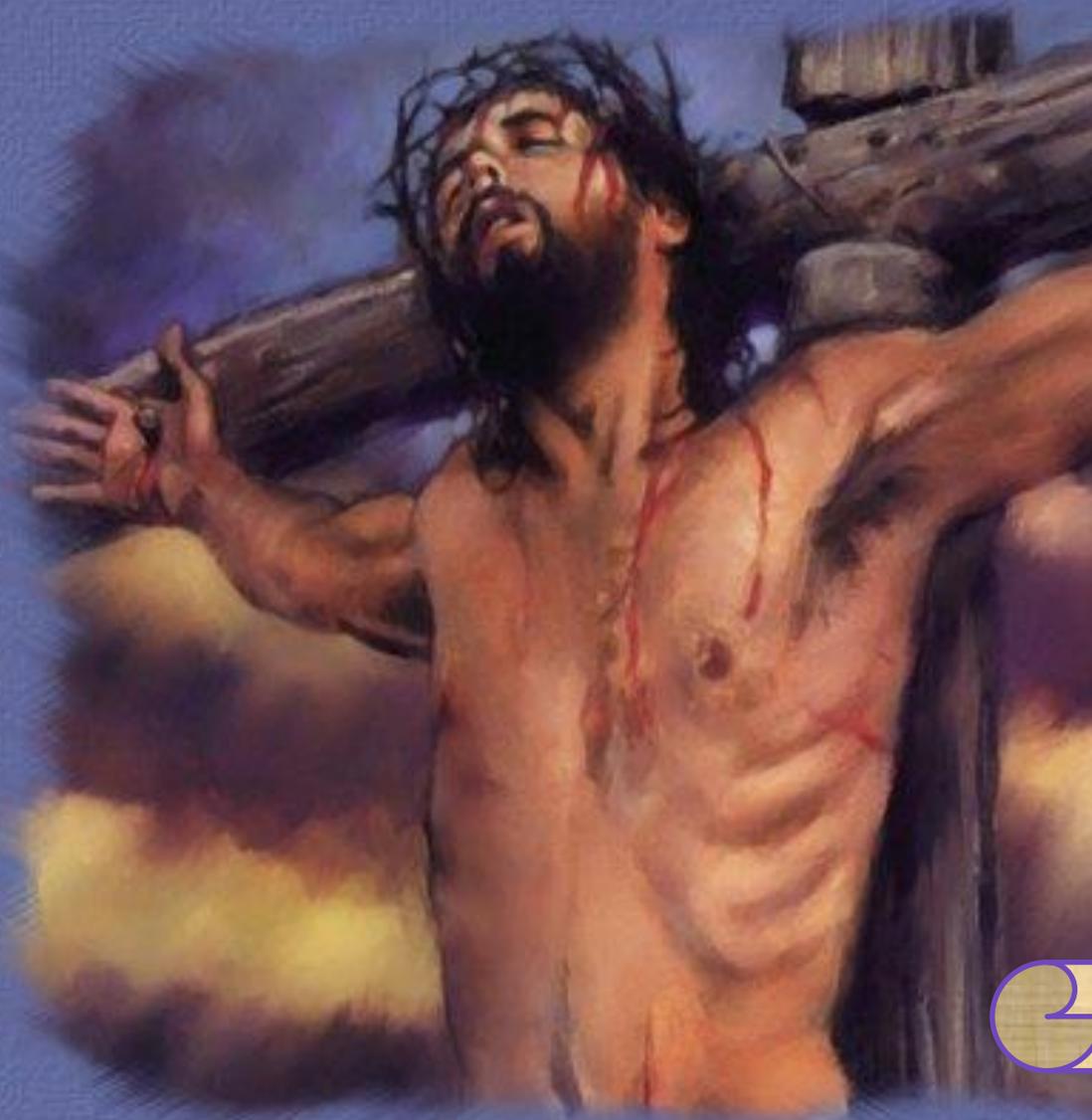


# Eyes on Me (주목)!



이방인의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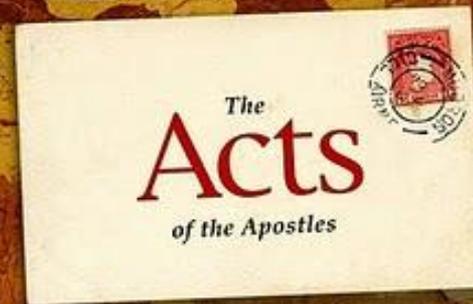
# 예수님의 새 성전, 그 설계도?



- 내벽철페! -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엡2:14)

## b. 오순절 사건



dobra nowina

goda nyheter

bonne nouvelle

buenas noticias

Хорошая новость

انباء طيبة

dobrá zpráva

καλὴ εἰδησι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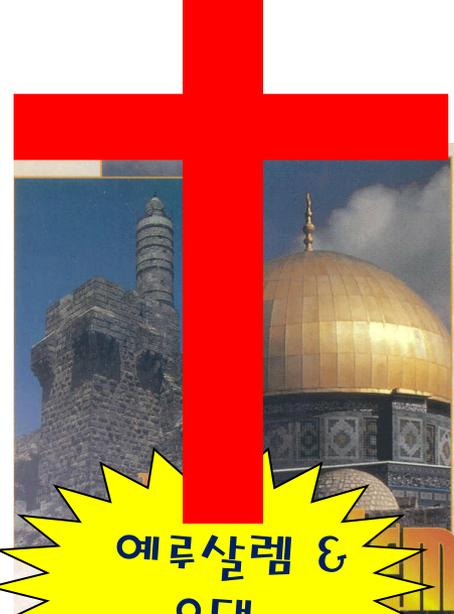
# IN EVERY LANGUAGE

## 오순절의 복: 창세기 저주의 해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창 6:3)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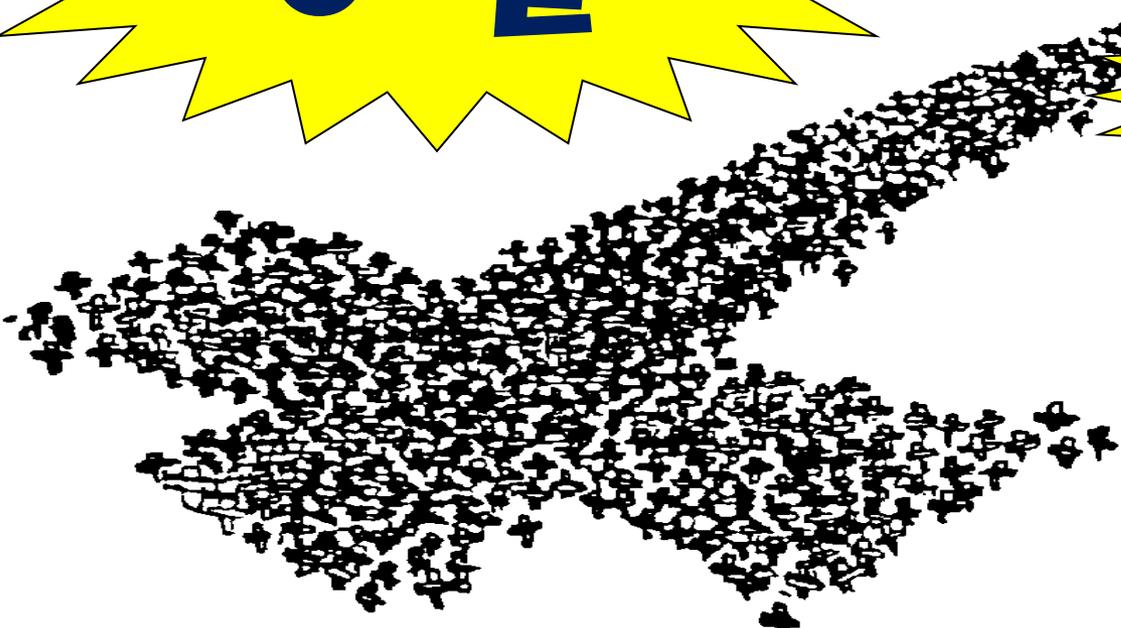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1:8)



예루살렘 &  
유대

땅  
끝

사마리아



The Best  
이방인 코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계7:9-10)

Maybe...  
It's  
You!



구약성경을 번역해 처음 번역 시작한 사람들



오랜포이 장세기    헨리크 시편    제로 알던-다우엘서    스티븐슨 이사야서    데이비스 여호수아서



구약전서(왼쪽)는 번역자들이 분업 작업을 시작한 19년 동안 150만 번역을 완  
 료했다. 이들은 '성경전서'와 '구약전서'를 묶어 1911년 출간된 '성경전서'.

최성근 교수 제공

# JX, 하나님의 자기계시

정의 (Justice)

사랑 (Love)

희년법

(구)언약

이스라엘의 실패

선택은 보편(세상)을 지향한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